

전기차 주도권 사활... 현대차그룹, 글로벌 생산거점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尹, 중대본 회의 주재 코로나 엔데믹 선언 위기경보 경계 조정

윤석열 대통령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심각' 경보를 해제하며 사실상 '엔데믹(감염병 주기적 유행)'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중대본에서 코로나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는 공중보건비상사태를 해제하고, 정부의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도 코로나 심각 단계 해제를 권고했다"며 "3년 4개월 만에 국민들께서 일상을 되찾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나긴 팬데믹을 지나 일상으로 오기까지 최전선에서 헌신해 주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백신 치료제의 연구 개발, 생산에 노력을 기울인 보건산업 종사자, 지자체 공무원, 보건당국에 감사드린다"며 "무엇보다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경보를 경계로 조정함에 따라 ▲확진자 격리 의무 7일→5일 ▲입국 후 PCR 검사 권고 해제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의 모든 장소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코로나19 관련 규제의 해제를 선언했다.

다만,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보호는 강화하고 코로나19와 관련된 검사·치료 지원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그동안 정치 방역에서 벗어나 전문가 중심의 과학 기반 대응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 왔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팬데믹에 적용할 수 있는 백신 치료 개발 역량을 높이고, 국제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현대차, 인도에 10년간 3조 투자
韓美 이은 전기차 생산거점 활용
美 조지아주 HMGMA 건립 중
2026년부터 年 30만대 양산
울산에도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

현대자동차그룹이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 공략을 위해 영토 확장에 나서고 있다.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그룹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빠르게 생산 기지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북미와 한국에 이어 세계 최대 자동차 신흥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인도에도 전기차 생산기지 구축에 나선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인도판 매입인은 첸나이 공장이 있는 남부 타밀나두 정부와 전기차 생태계 구축 관련 투자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투자 규모는 최대 10년간 1500억~2000억루피(2조4000억~3조2300억원) 수준이다.

앞서 현대차는 2021년 인도에 400억 루피(620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2028년까지 전기차 6종을 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계획은 2년 전 밝힌 투자 계획보다 액수가 더 늘어 신형 전기차 등 관련 목표치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현지 매체는 현대차의 투자

액 대부분은 전기차 생산과 생태계 구축, 수소전기차 기술 개발 등에 사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차가 이처럼 인도 시장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 시장 부진을 만회하고 인도를 한국과 미국에 이은 또 다른 전기차 생산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또 현대차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인도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지겠다는 전략이다. 현대차의 지난해 인도 시장 판매 대수는 55만2511대로, 2021년보다 9.4% 증가했다.

현대차가 인도 시장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함에 따라 현지 생산량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는 지난 1998년 남부 첸나이에 1공장을 짓고 2008년 2공장을 세워, 연간 7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

현재 진행 중인 제너럴모터스(GM)의 마하라슈트라주 탈레가온 공장 인수 작업이 마무리되면 연간 85만대 안팎의 생산능력을 갖추게 되는데, 추가 투자로 공급 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대차그룹이 인도 전기차 공장 건설에 나서면서 글로벌 시장 경쟁력은 더욱 향상된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공장 HMGMA(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짓고 있다. 애초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우정비행'

11일 제주 항공우주박물관에서 열린 딘 헤스 대령 8주기 추모식에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로고를 부착한 한국 공군 KF-16(왼쪽 2대), 미국 공군 F-16(오른쪽 2대) 전투기가 제주도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딘 헤스 대령은 6·25전쟁 항공전 영웅이며 1,000여 명의 전쟁고아들을 구출하는데 기여했다. /뉴시스

11일 제주 항공우주박물관에서 열린 딘 헤스 대령 8주기 추모식에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로고를 부착한 한국 공군 KF-16(왼쪽 2대), 미국 공군 F-16(오른쪽 2대) 전투기가 제주도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딘 헤스 대령은 6·25전쟁 항공전 영웅이며 1,000여 명의 전쟁고아들을 구출하는데 기여했다. /뉴시스

2025년 내 완공해 2026년 양산 본격화 계획을 2024년 내 완공해 2025년 양산 본격화로 1년 앞당겼다. 이 곳은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연간 30만대 규모의 전기차 생산을 예상할 예정이다.

또 국내에서도 현대차·기아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에 나섰다. 현대차는 울산 공장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신설한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커버스토리

식량 중요 매개체 '꿀벌', 전국서 208억 마리 사라져

(56.3%)

밥상 덮친 기후위기

이상기후에 식물 재배 힘들어져
정부, 민·관 전문가 협의체 발족
꿀벌 실종 따른 농산물 피해점검

기후위기가 거창한 캠페인성 구호가 아니라 우리 일상을 위협할 정도로 가까이 다가왔다. 기온상승과 꿀벌의 실종이 우리가 매일매일 접하는 밥상에까지 영향을 주게 된 것이다.

기후위기는 전 세계적인 추세여서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우리 정부는 식량위기를 가져오는 기후위기 대처를 위해 전방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관련기사 4면>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식물 재배



광대나물꽃에 꿀벌이 앉아 꿀을 따고 있다. 꿀벌 개체수 감소는 식물 생태에 영향을 크게 미쳐 장기적으로는 식량난까지 일으킬 수 있다. /뉴시스

가능일수는 매년 길어져 2020년 기준 258.7일에 이르러 30년 전인 1993년 대비 240.0일 대비 18일 이상 길어졌다. 그러나 전반적인 평균 기온 상승은 물론 폭염과 한파가 길어지고 이상기후 현상이 이어지며 실제로 안정적인 작물 재배는 과거보다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상기후로 실종된 꿀벌 피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민관 전문가 협의체를 11일 발족했다. 앞서 9일에는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작황 불량으로 불안정한 시세가 예측되는 농산물의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은 '꿀벌의 실종'이다. 한국양봉협회에 따르면 올해 약 208억여 마리, 전체의 56.3%에 달하는 꿀벌이 사라졌다. 지난해 전국 39만517개 벌통에서 60억 마리가 없어진 것보다 피해 규모가 3배 커졌다. 가장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곳은 경북지역으로 25만 7339개 벌통의 꿀벌 50~75% 가량이 사라졌다.

정부는 민관 합동 협의체 '지속 가

능한 양봉산업 협의체'를 발족하기로 하고 김경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운영을 시작하기로 했다. 꿀벌의 실종은 단기적으로 꿀 시세를 올리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농산물 생산 농가와 원예·종묘업계에 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빠른 회복과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 협의체를 통해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한 정밀한 사육현황 조사 방법을 정하는 등 정책 마련에 필요한 기초통계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또 사육밀도 관리, 밀원 수 확보 방안, 농약·살충제 등이 양봉에 미치는 영향과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방안 등 중장기 발전 방향과 연구개발(R&D)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seoh@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차기 총선... 정부여당 지원 44% 정부여당 견제 43%
▲ 한 총리, 규제역에 "살처분, 출입통제, 소독 방역 만전 기하라" /사진 뉴시스

▲ 흩어져 있던 해외 법령정보 한데 모인 다
▲ 윤재옥 "민주 전대 돈봉투·코인 의혹... 우리도 더 엄격해져야"



▲ 윤상현, 김재원·태영호 징계에 "조기수습 못한 리더십 아쉬워" /사진 뉴시스
▲ 민주 "감사원, 대통령실·관저 의혹은 치보며 덮으려 하니"

구글 AI챗봇 ‘바드’에 尹정부 정책에 대해 물으니

“탈원전 정책 폐기… 일부서 찬사 vs 환경단체 반발 불러”

한국어 등 40개언어 지원 AI챗봇
최신 대규모 언어모델 팜2 탑재

한국 가장 유명한 뮤지션 물음엔
“재능있는 뮤지션들 많지만
자주 언급되는 뮤지션은 BTS”
챗GPT 답변보다 자연스러워

Q: 윤 대통령 출범 이후 개선된 정책
은?

바드: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 발전을 확대할 것이라
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탈원전 정
책에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찬사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
한 비판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
정부패와의 전쟁은 “정치보복”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은 “미국 편향적”이라는 비판
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향후
어떤 정책을 시행할지 주목됩니다.

바드의 답변이다.

구글이 한국어 지원이 가능한 AI챗
봇 ‘바드’를 소개했다. 바드는 한국어를
포함한 전 세계 국가 180개 국가에서 전
면 개방한다.

구글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
밸리 구글 마운틴뷰 캠퍼스에서 개최한
연례 개발자대회(I/O)에서 ‘바드’ 서비
스를 180개 국가에서 전면 개방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순다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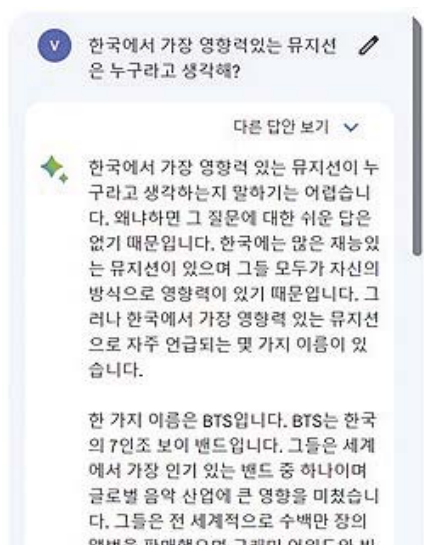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가 10일(현지
시간) ‘구글 연례 개발자 회의’(I/O) 연설하는
모습 /뉴시스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마운틴뷰에서 열린 ‘구글
연례 개발자 회의’(I/O)에서 “오늘부터
바드 이용을 위한 대기자 명단 운영을
종료한다”며 서비스 개시를 알렸다. 그
간 영국,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만 제한
적으로 시범 서비스를 출시하던 구글이
이번 바드에는 한국어, 일본어를 추가
하며 본격적인 서비스에 나섰다. 순차
적으로 40개 언어로 서비스 지원을 확
대할 계획이다.

오픈 AI의 챗GPT가 전 세계 AI시장
을 선도 하고 있는 가운데 구글은 더 강
력해진 바드를 필두로 치열한 경쟁을
예고 한것.

바드에는 구글의 최신 대규모 언어모
델(LLM) 팜2(PaLM2)가 탑재됐다. 팜
2는 지난해 4월 선보인 팜의 업그레이



한 가지 이유는 BTS입니다. BTS는 한국
의 7언조 보이 밴드입니다. 그들은 세계
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밴드 중 하나이며
글로벌 음악 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
다. 그들은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장의
앨범을 판매했으며 그레이트 레퍼토리 비

드 버전이다. 100개 이상의 언어를 지원
할 수 있으며 5000억 개의 파라미터(매
개변수)를 바탕으로 이메일 작성, 정보
검색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아이디
어, 새로운 제안 등 창의적인 작업까지
가능하다. 또 스스로 20개가 넘는 프로그
래밍 언어로 코딩할 수 있으며 수학, 과학
적인 용어로도 작업이 가능해졌다. 이같
은 기술력을 토대로 AI생태계를 확장시
키고 선도하겠다는 전망이다.

구글은이같은 바드를 일부 이용자들
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확성을 기반으로한
답변을 위해 추후 지속적으로 검색 서
비스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순다르 피차이 최고경영자(CEO)는
“현재의 대규모 언어 모델들은 아직 한
계가 있는 초기 기술”이라고 현 상황을

꼬집었다.

◆챗GPT vs 바드 체험해보니

챗GPT와 바드에 같은 질문을 해봤
다.

Q: 한국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개선된
정책은?

챗 GPT: 윤대통령은 점심 시간과
주말을 이용한 소통행보, 시민에게 개
방한 집무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윤대통령은 2년 차 국정에서 경제
와 민생의 위기를 살피는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외교의 중심도 경제에 두고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하겠다고 밝혔
습니다.

구글의 바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다.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 발전을 확대할 것이라
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탈원전 정
책에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찬사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
식”을 기치로 내걸고 부정부패와의 전
쟁을 선포했습니다. 이로 인해 외교 정
책에 실망한 사람들 사이에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정
책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
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결정은 환경 단
체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윤석
열 정부의 부정부패와의 전쟁은 “정치
보복”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드의 답변은 오픈AI의 ‘챗GPT’가
다소 모호하게 설명하는 것과는 대조적
이다. 바드는 윤정부의 출범 날짜와 사
회적인 현 상황을 빗대어 다양한 시선

으로 답변한 점이 눈에 띈다. 또 다른 답
에서도 차이가 났다.

Q: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뮤지션은
누구야?

챗GPT: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뮤지
션은 방탄소년단입니다.

바드: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뮤
지션이 누구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
다. 한국에는 많은 재능 있는 뮤지션이
있으며 그들 모두가 자신의 방식으로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
주 언급되는 뮤지션은 있습니다. 한 가
지 이름은 BTS입니다.

답변에는 정확한 차이가 있었다. AI
언어 모델은 다양한 정보를 취합해 질
문에 맞는 객관적인 답을 제공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이 부분에서 챗 GPT
는 다소 직관적인 답변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라는 언어적 특성으로 한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과 챗GPT의 무료
버전이라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바드의 언어구사 표현 능력은 초기 시
범 운영치고 훌륭했다.

구글이바드에한국어를 추가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이용자는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방대한 데이터 확보가 어렵고
이에 따른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업계는 한국이 AI에 특화된
나라고 앞으로 잠재력이 크다는 평이
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중견기업 300곳에 4조 대출 신사업 진출 등 지원금 마련

산업부 ‘라이징리더스 300’ 대상 모집
연간 60개사 내외로 총 5년간 시행

중견기업 300개사에 5년간 4조원을
대출 지원하는 전용 금융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우리은행은 12일
중견기업 전용 금융 프로그램 ‘라이징
리더스(RisingLeaders)300’ 지원대상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라이징 리더스300 프
로그램은중견기업의 신사업 진출·확장
등 기업 성장사다리 확보에 필요한 금
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해외진출, 에너지 절약(E
SG), 신기술 개발, 디지털 전환(DX) 등
각 분야에서 성장잠재력과 전문성을 보
유한 중견기업이나 후보중견기업이다.

올해 상반기 30개사 모집을 시작으로
연간 60개사 내외, 5년간 총 300개사에
4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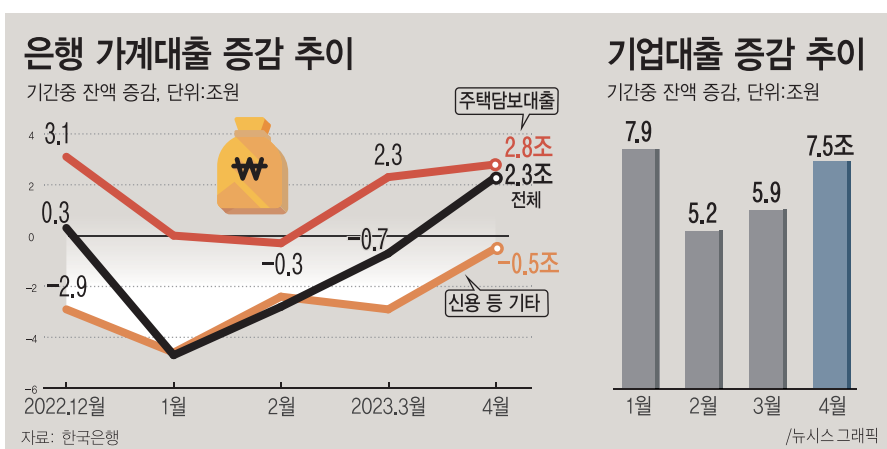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00억
원 대출 ▲1.0%포인트 금리우대 ▲회
사채 발행 지원 ▲글로벌 데스크 운영
등을 지원하고, 이후대한무역투자진흥
공사 등 전문기관별 ▲중견기업 수출
바우처 연계 ▲에너지 혁신 스타트업

매칭 ▲중견기업 전용 연구인력 사업
연계 ▲디지털 전환 컨설팅 등 후속 지
원을 통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기
업 성장 이어달리기 체계를 구축할 계
획이다.

산업부 제경희 중견기업정책관은
“그간 중견기업계 성장에 큰 애로사항
인 ‘자금조달’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라이징 리더스 300 프로그램을 통해 튼
튼한 기업 성장사다리가 구축되길 기대
한다”며 “정부는 금융지원을 포함해 규
제 혁신, 기술, 인력 지원 등 중견기업
성장에 필요한 지원책을 확대해나갈 계
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중견
기업은 지원분야별 ‘해외진출’(KOTR
A), ‘ESG 및 에너지 절약’(중견련), ‘신
기술 개발’(KIAT), ‘디지털 전환’(지능
화협회) 등 전문기관에 신청서를 제출
해야 한다. 이후 각 전문기관은 신청기
업의 투자계획과 성장잠재력을 종합 평
가해 1.5배수 이내 지원후보를 우리는
행에 추천하고, 이후 우리은행의 심사
를 거쳐 선정기업을 확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12일부터 산업통상자
원부 누리집이나 우리은행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주택거래 상승… 가계부채 2.4조 ↑

한은,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 1052.3조

지난달 가계가 은행에서 빌린 돈이 2
조4000억원 늘었다. 지난 2월부터 주택
매매와 전세 거래가 늘어나면서 주택담
보대출 증가폭이 확대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2023년 4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
계대출 잔액은 1052조3000억원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2조4000억원 증가했다.

윤옥자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총
괄팀 차장은 “통상 주택거래가 발생한
후에 가계대출 수요까지 2~3달이 발생
한다”며 “1월 대비 2월에 늘어난 주택
매매와 전세거래가 시차를 두고 주택담
보대출 증가로 이어지며 가계대출이 확
대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 1월 1만9000호에서

2월 3만1000호, 3월 3만5000호로 증가
했다. 전세거래량도 1월 4만8000호에
서 2월 6만호로 늘었다.

이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03
조6000억원으로 전달 대비 2조8000억
원 증가했다. 전세자금대출은 같은기간
1조7000억원 감소해 전달(-2조3000억
원) 대비 감소폭이 축소됐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가계 기타대출은
감소세가 둔화됐다. 가계 기타대출 잔액
은 247조3000억원으로 전달 대비 5000
억원 줄었다. 2월과 3월 각각 2조4000억
원, 3조원 감소폭을 나타낸 것과 비교하
면 약 2조원 이상 감소폭이 축소됐다.

윤 차장은 “3월에 이어 4월에도 주식
투자를 위해 신용대출을 활용하는 비중
이 늘며 기타대출 감소폭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1면 ‘전기차 주도권 사할’서 계속

울산·화성에 전기차 공장 글로벌 주도권 잡기 올인

현대차 울산공장의 전기차 전용 공장
은 1996년 아산공장 가동 이후 29년 만
에 들어서는 현대차의 국내 신공장이다.

약 2조원이 신규 투자되며, 7만1000
평의 건축 면적으로 올해 4분기 본격 착
공에 들어가 2025년 완공될 예정이다.
전기차 전용 신공장은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스마트 시스템, 자동화, 친환경
생산 시설을 기반으로 다양한 차세대
미래차를 양산한다.

또 현대차그룹은 지난 4월 기아 화성
오토랜드에 국내 최초 전기차 전용 공
장 건설에 돌입했다. 이 곳은 약 3만평
의 부지에 1조원 가량이 투입된다.
2025년 하반기 양산에 돌입해 연간 최
대 15만대까지 생산 능력을 확보할 계
획이며, 유연생산, 저탄소, 지능화, 인
간 친화를 추구하는 혁신 공장으로 국
내 미래차 생산의 대표적인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오토랜드 광
명도 상반기 중 내연기관 생산 시설을
전기차 전용 라인으로 변경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정의선 회장이 “내연기관차는 우리
가 패스트 팔로워였지만 전기차 시대는
퍼스트 무버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 만
큼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
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전기차 생산 거점
확대에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양성운 기자 ysw@

‘모든시술 중단’ 아닌, 환자에게 ‘의미 없는 것만 중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향서) 작성은 오랜 고민 끝에 행하는 의식 있는 자의 선택이다. 본인이 언젠가 말기 환자가 되거나 임종기에 다다랐을 때 무의미한 생명 연장 치료를 멈추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지를 생전에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다. 만약 의향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종기에 의식을 잃으면 담당의가 가족의 진술을 토대로 연명 치료 여부를 결정한다. 의향서는 법률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공공기관, 노인복지관 등 지정된 기관에서만 작성할 수 있다. 때마침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대표의원 김상훈 국민의힘,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구책임 의원 서영석 민주당 의원)”가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해서 10일 오후 신분을 들고 찾아갔다.

♥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가

(下) 사전의향서 작성 해보니

◆“치료효과 전혀 없는 연명의료 중단”

임시 상담소가 마련된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 2명의 상담사가 2명의 등록희망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있었다. 기자는 연명의료관리센터 연명의료운영관리팀의 윤지은 주임행정원에게 상담을 받았다. 신분증을 제출하고 자리에 앉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봤던 의향서가 A4용지에 인쇄된 채 책상에 놓여있었다.

제도의 취지·목적 정확하게 알아야 환자의 연명의료 이익 여부가 중요 국회서 ‘찾아가는 의향서 상담소’ 운영

상담을 시작한 윤지은 행정원은 “치료 효과가 전혀 없이 생명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다. 단,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와 영양분, 물, 산소의 공급을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해선 안 된다”며 “환자에게 어떠한 이익이 하나도 없는 시술들에 대해 의술을 중단하는 것이지, 빨리 돌아가시도록 돕는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제일 먼저 설명했다.

그러면서 “며칠이나 수주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보이는 환자를 임종기 환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환자의 상태를 잘 아는 담당의가 판단을 하고 임종기라고 판단된 다음에 담당의는 이 사람이 의향서를 썼는지 여부를 조회한다. 환자가 사전에 의향서를 작성했으면, 의식 있는 임종기 환자의 경우 연명의료 거부 관련 의사 변화를 물어보고 환자가 의사에 변화가 없으면 확인 서식을 작성하고 환자에게 불필요한 시술을 중



본지 박태홍 기자가 5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차려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찾아가는 국회 상담소에서 연명의료관리센터 연명의료운영관리팀 윤지은 주임행정원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한 상담을 받고 있다. /박태홍 기자

단하게 돼 있다”고 의향서가 실제로 말기 환자나 임종기 환자에게 어떤 식으로 효력을 발휘하는지 설명했다.

의향서에 의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항목은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기타(담당의가 의학적으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중단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다.

윤 행정원은 “환자가 받는 모든 항목에 대한 시술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 환자에게 의미 없는 것만 중단하는 것이다. 시술을 중단하기 전에 의료진이 의식이 있는 경우엔 환자에게 이 시술이 치료에 이익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의식이 없으면 가족에게 설명을 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때 환자에게 가슴 압박을 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심장과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처치법이 되기도 하지만, 임종기 환자한테 오히려 갈비뼈 골절로 인해 기흉 등 부작용이 발생해 오히려 환자 상태를 악화시키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의 목적이 환자의 자기결정권도

중요하고 홍보될 때 자기 결정권 존중에 맞춰져 있지만, 가장 우선인 것은 환자에게 연명 의료의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이 자기결정권 존중이라고 보는 것이 법의 목적이자 취지라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통증·증상 완화 돕는 호스피스 이용 여부도 선택”

기초적인 설명을 듣고 안내에 따라 의향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작성했다. 그 후, 윤 행정원은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 여부를 묻기 위해 설명을 이어나갔다.

그는 “호스피스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 서비스다. 의향서에선 호스피스 이용 의향 여부만 선택한다. 말기 환자부터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만약에 이용할 때가 오면 별도의 신청 절차가 또 있다”고 말했다.

호스피스는 병동에 입원하는 방법, 호스피스 병동이 아닌 병실에 입원해 있는 환자를 호스피스 팀원이 찾아서 관리해주는 방법, 집에서 머무르는 환자를 호스피스팀원

이 와서 관리해주는 방법이 있다. 나의 죽음 가까이 찾아올 통증과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서비스가 있다니 ‘이용 의향 있음’에 펜을 그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은 것이 의향서에 총 6가지 설명 사항 중 2가지를 끝낸 것이다. 나머지 4가지 항목은 ▲효력 및 효력 상실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 ▲등록기관 폐업·휴업 및 지정 취소에 따른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이다.

의향서 등록자 자유롭게 변경·철회 작성 후 반드시 가족에게 공유해야 가족 이해 못하면 효력 발휘 무용지물

추후에 담당의를 통해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면 의향서의 효력은 상실되고, 등록된 의향서는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다. 또한, 의향서 등록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의향서를 변경하거나 철회(온라인, 유선, 방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환자 사망 전 열람허용 여부 항목에서 ‘열람 가능’을 선택한 후 서명을 거친 후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이 완료됐다. 희망자는 의향서 작성을 증명하는 실물 카드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윤 행정원은 의향서작성 후 가족에게 반드시 작성 사실을 공유하고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등록자가 오랜 고민 끝에 의향서를 작성했어도, 가족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적장 의향서가 효력을 발휘할 때 무용지물이 돼 버린다”면서 “가족분들이 이 제도에 대해 모르겠다고 하시면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의미에 대해 안내를 드리고 있다”고 했다.

상담에 걸린 시간은 약 25분. 그렇게 사전에 연명 치료 중단 의사를 밝힌 170만명(2023년 4월 기준) 중 한 명이 됐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확대 노력”

종합병원 등 데이터베이스 공유 늘릴 것

기자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찾아가는 상담소’에서 의향서를 작성하고 상담사와 나눈 질문 중 기사에 넣지 못한 질문을 정리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임종기에 환자가 의식을 잃으면, 의향서를 썼음에도 가족이 이를 되돌릴 수 있나?

“가족들이 환자의 연명 치료를 원하면 계속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이를 중단해도 문제는 없으나, 정서상 아직까지 병원에서 비용을 지불하거나 등 환자 관리를 하는 분들은 가족이다. 가족들이 환자의 연명치

료를 원하는 상황이면, 의향서를 작성했다 라도 담당의가 가족의 의사를 막으면서까지 연명 치료를 중단하지는 않는다. 의향서를 사전에 쓴 사실이 확인되면 환자나 가족에게 확인 서식을 받는데,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게 될 것이다.”

-만약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는데, 노년기가 아니라 청년기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임종기에 다다른다면?

“그런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오면, 무조건 응급 처치가 먼저다. 처치를 한 다음에 환자 상태가 안 좋고 임종기에 다다른 경우엔 의향서 작성 여부를 확인한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가족에게 ‘연명의료를 중단 하려고 한다’고 밝히고 중단할 수 있다. 만약에 가족분들이 더 치료를 해달라고 하면

(위 질문처럼) 확인 서식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일단은 가장 상위법이 응급의료법이고, 이 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 행위에서 응급 처치는 제일 먼저 해야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데이터베이스는 종합병원급에서 공유가 되나?

“상급종합병원은 다 등록이 돼 있고, 종합병원은 50% 정도, 병원급은 30% 정도, 요양병원은 5% 정도 구축돼 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 많이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요양병원에서 임종기에 이르면?

“데이터베이스 등록이 안 된 의료기관에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여부가 확인이 안 된다. 의료 기관에 윤리위원회가 있어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노인들이 많이 입원

하시는 요양병원의 의향서 데이터베이스 등록 확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연명의료관리센터에서 공공 윤리위원회 12개소를 지정해놨다.”

-호스피스는 의식이 있는 환자가 가나?

“보통은 의식이 있으실 때 간다. 신체적인 움직임 여부와 상관없이 말기 환자부터 갈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암, 면역력 결핍증, 간경화 환자들이 많다.”

-호스피스 병동을 가고 싶어도 병상이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호스피스에 3가지 종류가 있다. 호스피스 병동형이 있고 호스피스 병상이 아닌 일반병상에 호스피스 팀원이 찾아오는 방법, 가정형으로 집으로 팀원이 찾아오는 방법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호스피스 병동이 아직 많이 보급돼 있지는 않다. 정부에서도 지원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한계가 있다.”

/박태홍 기자

30년새 여름 20일 ↑ 겨울 22일 ↓... 제철음식 사라져간다

이상기후 여파

지난해 평균 기온 13.2° 기록
2012년 대비 1° 가량 치솟아
올해 서울 벚꽃 3월 이른 개화

계속되는 이상기후에 밥상이 휘청이고 있다.

올해 서울 벚꽃의 공식 개화일은 3월 25일이다. 관측을 시작한 1922년 이래 두 번째 이른 개화다. 지난 2021년 새롭게 계산된 벚꽃 개화 평년값은 4월 8일, 1월부터 3월까지 이어진 이상기후는 벚꽃을 철부지로 만들었다.

벚꽃만 이르게 피지 않았다. 양파와 무를 비롯해 축산과 수산물까지 이상기후에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

11일 기준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도매시장에서 양파는 2만2180원(15kg)로 평년 대비 82.9%, 무는



여름철 폭염과 잦은 호우 등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주요 식자재와 농산물 가격변동이 잦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배추가격은 한달새 2배 수준으로 오른바있다. 지난해 9월 서울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배추가 쌓여 있다.

51.3% 오른 1만 9380원(20kg)에 거래되고 있다. 반대로 급락한 재료도 있다. 소는 현재 100g당 1만3888원으로 평년 가격 1만5314원 대비 10% 가량 떨어졌다.

매년 매월 나타나는 식재료의 가격 등락 현상은 기후와 관련 있다. 식재료

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 변화폭에 따라 결정되는데, 조금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급량이다.

특히 농산물은 수급이 원활해지거나 과하면 가격이 떨어지고, 부족하면 가격은 급등한다. 비닐하우스 등 농업기술이 발전했지만 여전히 '제철' 식재료

는 존재하고, 일반적으로 제철을 맞은 식재료는 가격이 안정된다. 제철에도 가격이 폭등하는 작물이 점점 늘어나는데에는 씨앗과 모종의 정식(定植) 시기부터 출하 직전까지 이상기후의 영향을 받았다는 의미와도 같다.

실제로 현재 가격이 급등한 식자재 중 양파는 올해 주산지인 전라남도 일대에 닥친 가뭄과 이상기온으로 작황 불량의 결과물이다. 11일부터 지난해 5월 10일까지 지난 1년간 전라남도 일대에 내린 강수량은 1093.44mm로 평년 대비 75.7%에 불과하다. 지난해 가을 정식식기부터 계속된 가뭄으로 모종이 속수무책으로 말랐다.

상대적으로 축산은 계절에 따른 변화가 적지만, 최근에는 농산물에서 나타난 기후 문제가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가격에 영향을 받고 있다. 최근 가격이 급락한 한우는 러-우크라이나 전쟁과 기상이변으로 인한 배합사료 가격의 폭등이 생산비용을 증가시키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세계적으로 '식량위기' 우려 상황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초안 강화
환경단체 "정부 대책 마련 시급"

이상기후 현상은 매년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기상청 관측 자료에 따르면 1961~1990년까지 30년과 이후 30년(1991~2020년)을 비교했을 때 여름은 20일 길어지고 겨울은 22일 짧아졌다. 봄과 여름의 시작일은 각각 17일, 11일 빨라졌고 가을과 겨울은 각각 9일, 5일 느려졌다. 이는 식물이 성장할 수 있는 기간에도 영향을 끼쳐 10.1일 더 길어졌다.

현재 식물 성장 기간은 260여 일에 이르지만 정작 작황이 불량한 것은 이상기후 탓이다. 과거로 멀리 가지 않더라도 당장 지난해와 2012년을 비교해도 월별 날씨에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지난해 12개월 평균 기온은 13.2도로, 2012년 12.21도 대비 1도 가량 올랐다. 지난해 3월 평균기온은 7.7도였으나 2012년은 5.1도였다. 반대로 8월은 지난해 25.7도까지 떨어졌는데 2012년에는 27.1도였다. 지난해 11월은 가을 날씨가 계속 되면서 평균기온이 10도를 기록하고 최고기온은 15.4도에 이르렀는데, 2012년은 같은 달은 평균기온 5.5도, 최고기온 9.5도에 불과했다.

이상기후가 계속 되면서 '식량위기'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정작 정부의

대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당장 시급한 시세 안정에 급급하다는 게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지난 8일 대외경제 장관회의에는 처음으로 환경부 장관이 참석했다. 국제사회에서 ESG 활동과 탄소절감 여부가 새로운 수출입 기준으로 떠오르는 한편, 어려운 대외경제 속에서 정부가 세워야 할 대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참석이 필요했다.

지난해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초안보다 강화한 수정안을 표결로 승인했다.

CBAM은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55% 감축을 위해 EU가 마련한 기후변화 정책 패키지 중 핵심 법안이다.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배출량이 EU제품의 배출량보다 많을 때 차이 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실질적 비용을 부담시킨다는 점에서 세계 산업구조·교역질서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을 시작으로 확산 중인 이른바 '탄소세금'이 보편화 될 날도 멀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내기업은 당장 탄소배출량의 극적인 감소를 도모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여기에는 막대한 비용과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앞서 지난 3월, 정부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산업부문 감축 부담을 크게 줄였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산업부문 목표치를 기존 14.5%에서 11.4%로 낮췄다.

3.4%p 낮춘 결정에 대해 정부와 산업계는 "실행가능한 탄소 중립 이행 방안을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정부가 산업 현장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지 않고 무리하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했다"며 이를 옹호했다.

이러한 결정에 환경단체는 정책 공청회 현장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며 항의했다. 환경단체 측에서는 "기후 위기 대응을 포기한 것"이라며 "감축 대부분을 다음 정권으로 떠넘기고 현정권에서는 극소량만을 감축하겠다는 메시지"라고 비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꿈이 깃든
기술력에
희망을
DREAM
KIBO 기술보증기금

당신의 소중한 기술력은
대한민국의 미래이기에
기술보증기금은
당신의 꿈이 깃든 기술력에 희망을 드립니다

신뢰받는 기술평가시스템으로 혁신성장기업과 AI시대를 함께 합니다.

전문가·AI기반평가시스템
AIRATE
기술평가에 인공지능(AI)기법을 국내외 최초로 도입
전문가와 인공지능(AI)이 상호 시너지를 이끌어 내도록 개발된
기술보증기금의 독창적인 기술평가시스템



지난 4월 7일 서울 여의도 윤종로 벚꽃길에 벚꽃잎들이 떨어져 있다. 올해 서울 벚꽃의 공식 개화일은 3월 25일이다. 관측을 시작한 1922년 이래 두 번째 이른 개화다. /뉴시스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행동,
World EXPO 2030 BUSAN의 시작!

WAVE

미래의 길을 잇는 반도체 SK하이닉스로부터

SK하이닉스는 첨단 반도체 기술로
ICT세상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hynix

당정, 건설현장 정상화 속도… “불법행위 단속 특사경 도입”

불법·부당행위 근절 협의회 개최
제재 기반 강화차원 5대 법안 추진
“현장 불감증 만연… 노사 노력해야”

국민의힘과 정부가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 차원에서 관련 법령 개정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 및 건설사 불법 행위를 상시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당과 정부는 11일 국회에서 ‘건설 현장 불법·부당 행위 근절 대책 후속 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하기로 밝혔다. 민·당·정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위원장, 송석준 부의장, 한무경 제2정책조정위원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장동혁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조지호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 윤학수 전문건설협회장, 비노조 소속 크레인 조종사 등이 함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했다.

민·당·정 협의회가 끝난 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건설 현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후속 대책을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 기반 강화 차원의 ‘건설 현장 정상화 5대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해당법안은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계관리법·채용절차법·노동조합법·사법경찰직무법 등이다. 이 가운데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에는 특별사법경찰

을 노동조합·건설사 불법 행위 단속에도 투입하기 위한 조항이 들어간다.

당정은 임금 체불 방지 차원에서 공공 공사 중심의 전자임금지불시스템을 민간 공사에도 도입하도록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 불법 하도급 등 건설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당정은 이번 후속 대책 외에 건설 현장에서 법질서가 바로 세워질 때까지 실효적인 종합대책을 강구하는 역량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민·당·정 협의회에서는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 입장차도 확인됐다.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한 일부 건설업체 대표 측은 ‘불법 행위 노조원 개인에게 손해 배상’을 하도록 하는 법안도 주문했다. 정부는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대기업 측에서 불법 행위가 현재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시적 변화를 보인다고 보는 반면, 중소기업 측은 아직도 현장에서 갈 길이 멀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과 경찰 참석자들은 현장 불법 행위 배후를

철저히 추적해 엄정히 대응하고, 변화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부분은 엄정한 수사로 중간에 동력이 떨어지는 일은 없게 하고, 필요하면 현행 법까지 체포해 나가서 단속 조치를 실효성 있게 해나가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민·당·정 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원희룡 장관은 “건설 현장은 오랜 기간 쌓인 불법과 비정상의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정상적인 건설 현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과 노사 양측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원 장관은 “일부 건설사들은 수수만 하면 돈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서 하면 된다는 비틀어진 인식으로 불법 하도급, 임금 체불, 부실시공 등 문제에 대해 불감증이 상당히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자 측은 노조라는 간판을 내세워 월례비, 불법 전임비, 채용 강요, 생산성이 떨어지는 일을 안 하는 팀·반장, 자기 소속 노조원만의 현장 지배력을 통해 현장 생산성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다”며 꼬집기도 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與野, 25일 국회 본회의 합의… 전세특별법 처리 속도낸다

원내대표 회동… 임시국회 일정 조율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처리 예정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개의에 합의했다.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11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안은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는 것은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전세 사기 피해 인정 범위 ▲최우선 변제금 소급 적용 등 현안들이다.

이들 현안은 지난 10일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했으나 끝내 합의하지 못

한 사항들이다. 그간 여야는 지난 1일과 3일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수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쟁점을 둘러싼 입장차는 좁히지 못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모두 피해자에게 최대한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했다. 위원회에서 법안 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효성과 현실에 타당한 것을 마련하는데, 아직 다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장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도 “세 차례에 걸쳐 소위에서 논의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쟁점에 대해 조금 더 논의하고 합의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여야는 16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합의안 도출에 나설 예정이다.

여야는 16일 예정된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안 도출이 되지 않으면, 지도부 차원의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취

지로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25일 예정된 본회의 전까지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협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에는 (여야) 지도부에서 협상해 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오늘 네 번째 (전세 사기 피해)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이라서 조속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노력하기로 했다”며 “상임위에서 하든 지도부에서 하든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빠른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최근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60억 코인 투자’ 의혹으로 촉발된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재산공개 법제화 논의에도 여야는 속도를 올리기로 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와 저와 생 각이 같기 때문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당 간사를 통해 이미 법안은 제출돼 있으니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영훈 기자

김기현, 설화논란 공개사과… “엄격한 도덕 기준 지켜갈 것”

(국민의힘 대표)

국민의힘 김재원·태영호 징계

당원권 정지 1년·3개월 처분
당사자들 수용… 내홍 일단락

국민의힘이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의원을 징계하면서 ‘설화’로 인한 물의는 일단락시켰다. 당 외연 확장에 걸림돌로 작용한 악재가 사라지면서, 김기현 지도부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준비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김기현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김 최고위원과 태 의원이 ‘설화’로 징계가 내려진 데 대해 공개사과했다. 이어 엄격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도덕 기준을 지켜가야 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언제나 국민 눈높이에서 민심을 나침반으로 삼는 국민의힘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0일 김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태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결정했으며 당사자들은 이를 수용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리위 징계 발표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를 지지해 준 당원과 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당과 나라에 보탬이 되는 일을 찾아서 계속하겠다”고 했다.

태 의원도 사과 메시지와 함께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성공, 대한민국 번영, 한반도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영훈 기자

尹 대통령 “제2 창군’ 수준 국방혁신 필요”

국방혁신위원회 1차 회의 주제

윤석열 대통령이 ‘제2 창군’ 수준의 국방혁신이 필요하다고 국방혁신의 목표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또는 감히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게 하는 강군으로 군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1차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등 안보 환경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정부가 추구하는

국방혁신의 목표는 명확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대내외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군 구조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 군의 능동적 억제대응 능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정찰감시와 분석 능력,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초정밀 고위력 타격 능력, 복합·다층적인 대공 방어능력을 충실하게 확보를 해야 한다”며 “도발심리를 사전에 억제할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샘플하우스 오픈

제주도 최고급 모던 하우스 - 안트레힐

사명

우리가 잊지말아야 할 분명한 사명 하나.
우리는 이 땅에 괴롭기 위해 불행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
모두 행복하세요!

드라마 '우리들에 블루스' 촬영장 인근



| 문의방법 |

- 문자를 주시면 실 동영상, 사진진과 특징점을 보내드립니다.
- 현장방문을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보내 주시면 전화를 드립니다.

| 문의전화 |

010-6230-1828

함께 갈등없이 행복하게 사실분만 연락주세요 - 건축주 올림

가격

17억~20억

대지 약 190평

건평 약 77평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568번지 안트레힐

우리은행장 오디션 철통 보안… 늦어도 내주 쏷리스트 발표

임종룡 회장 ‘공정성’ 중요시
인선과정 대해 일절 언급 안해

빠르면 이번주 2차후보군 선정
26일 정기 이사회서 발표 예상

5대금융지주 최초로 오디션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은행장 선정 절차가 이달 중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투명성과 객관성을 중요시 한다는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의 의지가 크게 반영된 만큼 인선 작업과정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은행장 선임을 위한 ‘경영승계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 밝히면서 1차(롱리스트) 후보군 4명을 공개했다.

롱리스트에 오른 인물은 ▲이석태 우리은행 국내영업부문장(64년생, 순천고 중앙대 상업은행 출신) ▲강신국 우리은행 기업투자 금융부문장(64년생,



이석태 우리은행 국내영업부문장, 강신국 우리은행 기업투자금융부문장, 박완식 우리카드 대표, 조병규 우리캐피탈 대표(왼쪽부터).

동래고 고려대 한일은행 출신) ▲박완식 우리카드 대표(64년생, 동국대사대 부고 국민대 한일은행 출신) ▲조병규 우리금융캐피탈 대표(65년생, 관악고 경희대 상업은행 출신)다.

우리금융 ‘경영승계프로그램’은 4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자회사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의 내부 논의만으로 은행장을 선임했던 기존과 달리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검증 절차를 밟는다.

해당 프로그램은 ▲분야별 외부전문

가와 워크숍 형태의 1대 1 심층 인터뷰 ▲임원 재임 기간 중 평판 조회 ▲업무 보고를 통한 회장과 이사회 업무역량 평가 ▲자추위 최종 심층면접 및 경영계획 프레젠테이션(PT)으로 구성됐다.

우리금융은 1~3단계를 거쳐 후보를 2명으로 추리고 4단계 심층 면접 후 차기 은행장을 이달 선임할 예정이다.

1차 후보군들은 지난달 21일 열린 우리금융 정기 이사회에서 임종룡 회장과 사외이사 등에게 업무 현황과 향후 목표 등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또한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우리은행 노동조합이 행장 후보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했다.

금융권에서는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2차후보군(쏷리스트)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26일 우리금융지주 정기 이사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은행장을 선정할 것이라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통상적으로 CEO 후보 최종 평가를 앞두고 되면 후보들에게 1주일 정도 준비기간을 부여한다.

후보자들은 면접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고 회사는 후보들의 점수를 합산해 최종 면접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현재 유력한 후보군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행장 선임 과정에 공정성을 중요시 여기는 임 회장의 철학에 점수가 공개되지 않고, 외부전문가 역시 공개되지 않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쯤되면 쏷리스트 후보군 전망이 나올 시기인데 언급이 하나도 되지 않고 있어 보안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후보들과 면접관, 노조 역시 외부에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회사내부에서도 전혀 이야기가 돌지 않고 있어 직원들 역시 궁금해 하고 있다”며 “후보 중 한 분과 이야기를 했지만 인선 과정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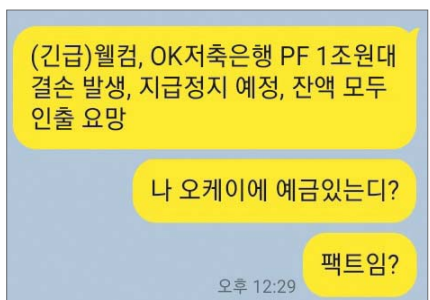
“5월 특수 자금조달”… 금리인상 저축은행, 부실루머 해명

전국 79곳 예금금리 0.5%p 상승
소비자들 부실영향 자금확보 의혹
저축은행중앙회 필두 전면 반박

저축은행이 최근 수신금리를 인상하자 예금주를 중심으로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일부 저축은행을 향한 ‘악성 루머’가 불안감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가정의달 특수’를 겨냥한 자금조달 성격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11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79곳 저축은행의 정기예금금리(1년 물) 평균은 연 3.93%다. 지난달 초(연 3.77%) 대비 0.16%포인트(p) 오른 수치다. 평균 예금 금리는 이번 달에만 0.5%p 상승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속도라면 또다시 연 4%대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달 초 연 4.5%의 금리를 제공하는 예금상품은 조흥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이 유일했다. 이달 같은 수준의 금리



박현민(가명)씨가 지난달 공유받은 내용을 가족들과 공유한 메신저 내역. /독자 제공

를 제공하는 예금 상품은 11개로 증가했다. 현재 업계에서 책정한 정기예금금리 상단은 연 4.5%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저축은행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번지고 있다. 저축은행발 잡음이 지속되자 예금금리 인상을 통해 자금확보에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등장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실제로 금융관련 커뮤니티와 맘카페 중심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불안감 확산 배경에는 지난달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된 부실 의혹 루머가 자리 잡고 있다.

아울러 올해 홍콩·더블·인천·오투 저축은행 등 네 곳이 실명확인 의무 위반 및 여신관리 미흡으로 금융감독원의 경고장을 받은 바 있다.

부실 의혹을 두고 업계에서는 저축은행중앙회를 필두로 전면 반박에 나섰다. 올해 1분기 저축은행의 총자산은 135조1000억원이며 유동성 비율은 241.4%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당국에서 책정한 유동성 비율인 100% 대비 141.4%p 초과한 수치다.

자금 조달에 속도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가정의달 특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저축은행은 ▲만기도래 상품 비율 증가 ▲대출량 증가 등을 이유로 예금금리를 상향 조정한다. 가정의달인 5월은 부모님, 자녀, 친인척 등 가족을 위해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잦아 만기도래 상품 비율이 높아진다. 연말연시 저축은행이 고금리 특

판 상품을 출시하는 것 또한 이와 같은 원리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연 4.5%가 넘는 예금상품이 등장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형 저축은행이 조달 경쟁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이 시중은행과 경쟁을 위해 예금금리를 1~2%p 높게 책정하듯 중소기업사 또한 대형사에 견주기 위해 금리를 상향조정 할 개연성이 있는 것.

이날 기준 웰컴저축은행은 ‘웰컴 e-정기예금’, ‘m-정기예금’, ‘정기예금’ 등 세 상품의 금리를 연 4.5%로 조정했으며 OK저축은행은 ‘OK e-정기예금’에 연 4.4%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한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권에 부실이 확산하면 평균 금리 인상 속도가 훨씬 가파를 것”이라며 “요즘처럼 대출 수요가 위축되면서 각 사별 만기도래 상품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KB국민은행

기존통장→모임통장 운영

KB국민총무서비스 출시

KB국민은행이 기존에 쓰던 통장 그대로 사용하면서 모임 통장을 운영할 수 있는 ‘KB국민총무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KB국민총무서비스는 모임 통장 운영을 위해 전용 통장 신규 개설이 필수인 시중 상품과 달리 기존에 쓰던 통장에 모임 관리 기능을 추가해 쓸 수 있다.

KB국민총무서비스이용 고객은 ‘정기회비 현황카드’를 통해 납부자와 미납자를 확인하고 미납자에게 ‘꼭꼭찌르기’ 알림을 보내 회비 납입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모임캘린더’를 활용해 모임의 공지사항과 일정 안내까지 가능하며 등록된 일정은 캘린더 외에도 알림 기능과 모임전용화면 배너를 통해 모임 구성원에게 공유된다.

이 밖에도 모임회비 현황을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월별리포트’ 및 KB스타프 렌즈캐릭터를 이용한 모임전용화면 꾸미기, 스티커 모으기 등 다양한 콘텐츠도 즐길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KB국민총무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6월 9일까지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에 응모한 서비스 신규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최대 100만 원의 모임 지원금 등 다양한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6월 16일 KB스타뱅킹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국민총무서비스는 기존 보유 통장에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한도 제한과 단기간 다수계좌개설 제한으로 계좌개설이 불가능한 불편함이 없다”며 “모임통장관리의 니즈가 있는 고객님께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케이뱅크 앱에서 공모주 청약정보 확인

‘공모주 메이트’ 서비스 출시
캘린더 형태로 일정 한눈에

앞으로 케이뱅크 앱에서 주식계좌 개설과 주식투자, 공모주 청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케이뱅크는 11일 공모주 청약일정을 한 눈에 확인하고 예상 배정주까지 계산하는 ‘공모주 메이트’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공모주 메이트는 공모주 청약 일정과 청약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다. 캘린더 형태로 청약일정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청약당일과 상장 당

일 등 주요 시점마다 알림으로 안내해 준다.

특히, 공모주 청약 계산기 기능을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예상 배정주를 계산할 수 있다. 입금액과 공모가, 증거금 비율 등을 입력하면 비례 배정 방식으로 자동 계산해 예상 배정주를 알려준다.

케이뱅크는 이번 공모주 메이트 서비스 출시로 앱에서 주식계좌 개설부터 주식 투자, 그리고 공모주 청약 정보 안내까지 주식투자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나유리 기자

한은, 순천만 국제정원博 기념주화 발행

한국은행이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기념주화(은화)를 발행한다. 신청은 5월 19일부터 6월 13일까지이며, 7월 26일부터 교부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행사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기념주화(은화) 2종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발행되는 화종은 은화 5만원화 2종으로, 1종은 박람회 대표 정원인 ‘호수정원’ 전경을 묘사하고 있고 2종은 노을 지는 순천만 습지와 순천시의 시조인 ‘흑두루미’를 묘사하고 있다. 발행량은 화종별로 7000장씩 총 1만4000장이다. 단품은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기념주화(순천만 호수정원 전경과 순천만 습지 흑두루미).

/한국은행

2000장(총 4000장), 2종세트는 5000세트(총 1만장) 발행한다.

/나유리 기자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 8년만의 ‘경영 복귀’ 글로벌 투자·인수합병 속도 전망

사내이사 선출시 ‘형제경영’
사업구조 개편… 3개사 체제 분리
인적분할 지주사 ‘동국홀딩스’ 출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경영 복귀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해 8월 대통령 특별 사면으로
취업 제한이 풀린 장 회장이 8년 만에
경영 복귀를 공식화하면서 책임경영을
강화한다. 특히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
한 미래 핵심 사업 등에 대한 신속한 의
사 결정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동국제강은 12
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장 회장의 사
내이사 선임 및 인적분할 안건을 의결
한다.

장 회장은 고(故) 장상태 명예회장의
장남으로 1978년에 입사해 오랜 경영
수업을 받은 뒤 차근차근 승진을 거쳐
1999년 대표이사 사장, 2001년 대표이
사 회장에 올랐다. 2001년부터 3년 동
안 사상최대 경영성과를 올리는 등
2000년 장상태 명예회장 별세 후 성공
적인 승계를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았
다.

그러나 2015년 5월 수백억원대 횡
령·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직후
인 2015년 6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
다. 이후 회사는 동생인 장세욱 대표이
사 부회장이 이끌어 왔다.

장 회장은 2016년 대법원에서 징역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하다
2018년 4월 가석방됐다. 출소 후에도 5
년간 취업제한 규정으로 경영에 복귀
하지 않았으며 지난해 8월 특별사면이
이뤄지면서 경영 복귀를 준비했다.

장 회장은 이번 주중에서 무난히 사
내이사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일반안건으로 보통결의사항으로 출석
주주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
의 4분의 1 이상으로 의결된다. 현재
장세주 회장은 13.94%를 보유한 동국
제강의 최대주주다. 장세욱 부회장
(13.52%), 장 회장의 장남 장선익 전무
(1.04%) 등을 포함한 우호지분 약 36%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장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전과 함
께 상정될 인적분할도 주목받고 있다.
인적분할을 통해 회사를 셋으로 나누
는 게 골자다. 동국제강은 안전 통과

시 다음달 1일 존속법인 동국홀딩스
(16.7%)를 지주사로 두고 사업부를 동
국제강(52.0%)과 동국씨엠(31.3%)으
로 나눈다.

동국제강은 열연(철판이 둘둘말린
형태의 기초철강재)사업을, 동국씨엠
은 열연을 재차 가공한 냉연강판이나
각종 도금강판 등을 주력으로 삼는다.
열연이 사업규모가 크지만 동국제강이
컬러강판 등을 주력 사업으로 키우고
있는 만큼 동국씨엠의 규모도 클 것으
로 보인다.

동국제강은 장 회장의 경영 복귀로
미래 먹거리 확보에도 속도가 붙을 것
으로 전망이다. 동국홀딩스는 정관상
사업목적에 기존 동국제강으로부터 물
려받는다. 여기에 지주 사업과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라이선스업,
창업지원 및 신기술 투자 사업, 시장조
사 등 컨설팅업 등이 추가된다는 점이다.
미래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스타
트업 등 기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도 적극적
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장 회장은 그룹
전반을 총괄하고 장세욱 부회장은 기
존 사업에 집중하며 ‘형제 경영’을 펼
칠 것”이라며 “(장 회장은) 책임 경영
강화와 글로벌 투자, 인수합병 등에서
신속한 의사 결정을 내리기 위한 것으
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G전자 ZKW, 전기차 ‘새 얼굴’ 만든다

독일 레하우 오토모티브와 개발

LG전자 자회사 ZKW가 새로운 미
래차 얼굴 개발에 나섰다.

ZKW는 독일 레하우 오토모티브와
‘지능형 차량 전면부’ 개발을 위한 업
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1일 밝혔다.

레하우그룹 자회사인 레하우 오토
모티브는 내외장재 및 범퍼 전문 기업
으로, 폴리머 등 고분자 화합물 분야에
서 선도적인 기술을 토대로 원재료와
시스템 창조 등을 개발해왔다.

양사는 협업을 통해 조명과 센서, 전
방장치 등 부품과 범퍼 등 외장재를 통
합 시스템으로 구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라디에이터 그릴이 필요없는 전
기차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면 범퍼와 헤드램프 등 구성
요소를 완전히 새로 해석해 차량 전면
부를 통합된 디자인으로 구현하게 된
다. 자동차 개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면부 디자인을 이음새를 최소화하고
로고와 센서 등을 활용해 혁신할 것으
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면 충돌에 대비해 탑승자
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성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빌헬름 슈테거 ZKW CEO(왼쪽)와 마르쿠스 디스텔호프 레하우 오토모티브 CEO.

마르쿠스 디스텔호프 레하우 오토
모티브 CEO는 “ZKW와 함께 차량에
새로운 얼굴을 부여하는 차별화된 디
자인과 기능을 갖춘 부품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빌헬름 슈테거 ZKW CEO는 “ZKW
가 지닌 세계 최고 수준의 조명 솔루션
과 레하우 오토모티브의 차량 내외장
재 분야 기술력을 결합해 차원이 다른
고객경험을 제공하는 통합 솔루션을
선보이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웅 기자 juk@

‘친환경 화장품 용기’ 글로벌 시장 공략

SK케미칼, ‘차이나 뷰티 엑스포’

SK케미칼이 글로벌 화장품 용기 시
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SK케미칼은
세계 최대 규모의 순환재활용(Circular
Recycle) 원료 및 제품 공장 보유한
곳이기도 하다.

SK케미칼은 오는 12일부터 14일까
지 중국 상하이전람센터에서 개최되는
‘차이나 뷰티 엑스포(China Beauty E
xpo)’에 참가한다고 11일 밝혔다. 펜
데믹의 영향으로 2년만에 개최되는 아
시아 최대 규모 뷰티 박람회 ‘차이나
뷰티 엑스포’는 세계적인 화장품 브랜
드 및 제조사, 유통업체, 관련 기관 등
이 참가해 최신 트렌드와 기술, 제품을
선보이는 행사로 40개국 3600여개 업
체, 39만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
된다.

최근 화장품 업계의 화두는 세계 화

장품 소비를 이끌고 있는 중국 시장이
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1년 중국
화장품 시장은 5726억위안 (한화 약
109조원) 규모로 1인당 화장품 구매액
이 미국의 4분의 1에 불과해 성장 가능
성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어 이
번 전시회에서 글로벌 화장품 회사들
과 중국 현지업체들의 뜨거운 홍보 경
쟁이 예상되고 있다. 중국 코폴리에스
터 시장 점유율 1위인 SK케미칼은 이
번 전시회에서 화장품 패키징 시장의
리사이클트렌드에 발맞춰 재생원료가
포함되거나 사용 후페트(PET)로 재활
용이 가능한 ‘지속가능 플라스틱 소
재’와 함께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경
험할 수 있는 전시공간을 마련했다.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 관계자들을 대
상으로 친환경 화장품 용기에 최적화된
소재를 소개하고 기술을 지원하는 프로
모션도 진행한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점유율 1위 삼성 추격… ‘페이·폴더블’ 맹공

애플, 국내 페이스리 시장 경쟁구도 치열
구글, 접는 스마트폰 내세워 도전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전 세계 스
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한
가운데 경쟁사들의 추적이 다방면으로
거세다. 애플과의 격차는 줄어들었으
며 페이 업계에서도 두 회사의 경쟁구
도가 만들어졌다. 여기에 구글 픽셀의
등장으로 글로벌 폴더블 스마트폰 시
장에서도 본격 대결이 예상된다.

◆삼성 VS 애플, 격차는 줄었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
스(SA)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분기 스
마트폰 출하량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
22.5%로 세계 시장 1위다. 애플은 1분
기 20.4%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 2월 출시된 갤럭시
S23 시리즈가 삼성전자의 점유율 상승
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유
럽·인도·중동·중남미 등 주요 나라에
서 전작인 갤럭시S22 보다 1.5~1.7배
더 판매했다.

하지만 이번 격차가 지난해 동기에
비해 그리 크지 않아 점유율 전쟁은 더
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같은 분
기 삼성전자와 애플의 점유율은 5.5%
포인트 차이를 보이며 삼성이 1위를 점
유했다. 하지만 올해는 2.1%포인트로
격차가 줄어들었다.



릭 오스테로(Rick Osterloh) 구글 하드웨어 부문 수석
부사장이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에서 열린 ‘Google I
/O’ 이벤트에서 구글 픽셀 폴드(Google Pixel Fold)
를 소개하고 있다. /뉴시스

더군다나 삼성전자 모바일 기기가
독점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국내 페이 시장에 애플이 등장하면서
다음 분기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올해 3월부터 근거리
무선통신(NFC) 결제 인프라가 구비된
주요 가맹점에서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삼성페이와 대결 구도
를 만들어 가고 있다. 현재는 애플페이
를 사용하려면 현대카드를 발급받아야
만 하는 진입장벽이 있다. 향후 애플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카드사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지만 아직은 발표된 바
없다.

‘삼성페이’의 편리함에 매력을 느꼈
던 고객층이 향후 ‘애플페이’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된 것
이다.

◆‘삼성 독주’ 폴더블 시장에 도전장
낸 ‘구글 픽셀’

구글은 ‘픽셀폴드’를 공개하며 삼성
전자의 폴더블 시장 독주를 추격하는
모양새다.

10일(현지시간) 구글은 폴더블폰
‘픽셀폴드’를 전격 공개했다. 구글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 마운틴
뷰 구글 캠퍼스에서 열린 연례개발자
회의(I/O)에서 픽셀7을 비롯해 픽셀
태블릿 등 픽셀시리즈 신제품을 선보
였다.

픽셀폴드는 삼성전자의 갤럭시Z폴
드4와 같은 방식으로 접는 폴더블 스
마트폰이다. 펼치면 7.6인치 화면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무게는 283g으로 삼
성 263g 보다는 무겁지만 접었을 때는
폴드4 보다 얇다. 구글은 “1회 충전에
최대 72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장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배터
리 용량은 폴드4보다 큰 4727~4821m
Ah를 채택했다.

해당 스마트폰에는 구글의 자체 제
작 칩셋인 ‘텐서 G2’가 탑재됐으며, 후
면에는 4800만화소 카메라를, 외부 전
면에는 950만 카메라를, 내부에는 800
만화소 카메라를 장착했다. 폴드4는
후면에 5000만화소를 제공한다. 픽셀
폴드의 가격은 1799달러(약 238만원)
부터 시작된다. /허정윤 기자

KT, 1분기 부진… 경영공백 현실화

영업익 22.4% 감소 4861억
매출 2.6% 늘어 6.4조 집계
‘B2B’ DX·부동산 사업 호조

초유의 경영진 공백을 겪고 있는 KT가 올해 1·4분기 부진한 실적을 냈다. 지난해 1분기에는 KT에스테이트를 통해 부동산을 매각하며 746억원의 추가 이익을 거뒀는데, 올해는 이 같은 일회성 비용이 사라지며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KT는 11일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2.4%나 떨어진 4861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기간 매출은 2.6%가 늘어난 6조4437억원으로 집계됐다.

B2B 플랫폼 사업은 디지털 전환(DX)과 부동산 사업에서 성장세를 나타냈다. AI컨택센터(AICC) 사업은 올해 1분기 신한금융그룹 통합 AI콜센터 구축사업을 수주했다. 부동산 사업은 지난해 11월 오픈한 명동 르메르디앙&목시를 포함해 호텔업의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KT는 모빌리티 분야의 디지털전환(DX)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 향후 커넥티비티, 인포테인먼트, C-ITS, 디지털물류 등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AI 기반 차세대 모빌리티DX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KT 광화문 사옥

/뉴시스

B2B 고객 대상 통신사업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4.1% 성장했다. 기업인터넷 사업은 대형 CP사의 데이터 수요 증가와 공공기관 전용회선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

기업통화 사업은 알뜰폰 사업자와 협력을 강화하고 고객 혜택과 편의성을 확대하는 등 알뜰폰 시장 트렌드에 빠르게 대응하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4% 늘었다.

B2C 플랫폼 사업 중 IPTV 사업은 국내외 OTT 플랫폼과 적극적인 제휴와 고객 중심의 서비스 개선으로 고객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지니TV는 올해 iF 어워드 사용자경험(UX)과 브랜드 정체성(BI) 부문에서 본상을 수상하는 등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플

랫폼으로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에 따라 IPTV 사업 매출은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

금융사업에서 BC카드는 신용카드 매입액 증가, 자체카드 발행 및 대출사업 등 신사업 분야 성장 등으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6% 늘었다. 케이뱅크는 2021년 2분기부터 여덟 분기 연속으로 영업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KT 김영진 CFO는 “KT는 인플레이션과 성장을 위한 투자 비용 증가에도 견고한 사업구조를 바탕으로 올해 1분기 매출 성장을 이끌어냈다”며 “지배구조 분야에서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뛰어넘는 선진 지배구조 체계 구축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KT클라우드 6000억 유치 ‘DX 시장’ 리더 면모 입증

IDC 공격 확장, DX 사업 추진
2026년 매출 2조 달성 목표

kt cloud

KT클라우드가 6000억원 규모 투자금을 유치했다.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로의 역대 최대 규모다. 이 과정에서 KT클라우드의 기업가치 4조6000억원을 인정받았다.

KT클라우드의 이번 자금 유치를 통해 공격적으로 데이터센터(IDC)를 확장하고 디지털전환(DX) 사업을 추진해 2026년 매출 2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KT클라우드의 IMM크레딧엔솔루션(ICS)으로부터 6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총 265만6808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IMM크레딧엔솔루션은 사모크레딧펀드(PCF) 운용사로 약 1.2조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IMM크레딧엔솔루션은 이번 투자에서 KT클라우드가 IDC 사업과 클라우드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어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더불어 성장성까지 동시에 확보한 우수한 투자로 평가했다. 또, KT클라우드의 업계 최고 수준

의 기술 및 서비스 경쟁력과 함께 사업 계획에 대한 성장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KT클라우드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22% 성장하며 5500억원을 상회했고, 영업이익 33% 증가하며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가시적인 사업 성과를 보이고 있다.

kt cloud는 대한민국 No.1 DX 전문 기업으로 IDC 사업 확장을 통한 압도적 1위 달성, AI 클라우드를 비롯한 클라우드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DX 시장 주도권을 장악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KT클라우드의 분야별 성장을 위한 전략적 투자와 공격적 사업 전개를 통해 2026년 매출 2조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IDC 사업에서는 ▲IDC 전략 포트폴리오 다각화, ▲글로벌 시장 개척, ▲기술 혁신을 통한 데이터센터 운용 효율화에 집중한다.

/채윤정 기자

“2분기 재생에너지 본격 구입 TF 구성”

LGU+ 자가 태양광 설비구축 추진
1분기 영업익 0.4% 감소 2602억
정보유출 보상 등 일회성 비용 늘어

LG유플러스가 ESG경영 일환으로 올해 2분기 재생에너지 구입을 본격 추진한다. 태양광 설비 구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2분기에 서비스 수익 4% 성장 가이던스를 달성하고,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재무성과를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여명희 LG유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11일 개최된 1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올해 1분기 자가 태양광 설비 도입 및 재생에너지 조달 방안을 수립했으며, 재생에너지 구매를 본격화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고 추진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통신장비, 환경설비에 대한 전력 사용을 절감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전력 사용량을 감축하고 데이터DB 정비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 전무는 또 “로밍 매출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됐고 기업 인프라 사업 등을 진행해 미래 성장 기반을 철저히 다지고 있다”며 “2분기에는 광고 플랫폼 등 새로운 플랫폼 사업을 통해 매출과 수익성을 개선하고 신사업 성장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알뜰폰 오프라인 컨설팅 전문 매장인 ‘알뜰폰 플러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서울 합정동에 1호점을 개설한 데 이어 인천, 대구,

부산 등에 7개 매장을 추가로 개장할 계획이다. 중소 알뜰 사업자와 상생이 강화되고 자사 MVNO(알뜰폰)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또 지난 1분기에 설비투자비용(CAPEX)이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지만, 연간 수준으로는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이날 1분기 영업이익이 2602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측은 이에 대해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은 정보유출 사건과 디도스 장애 발생으로 소비자 피해 보상과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일회성 비용을 투자하면서 줄어든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채윤정 기자

SK C&C, 생성형 AI로 디지털 혁신 선도

생성형 AI 토털서비스 론칭 웨비나

SK C&C가 다양한 엔터프라이즈 사업과 서비스에 맞출 수 있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디지털 혁신 길라잡이’로 나선다.

SK C&C는 오는 17일 기업의 생성형 AI 적용 방안과 실사례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생성형 AI 토털 서비스 론칭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등록사이트 ‘skdna2023.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생성형 AI는 인공지능이 텍스트, 음성,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스스로 창작하는 기술로 전 산업 분야에서 이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 방안을 찾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웨비나는 기업 내에서 어떻게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사례를 소개하고 국내 기업 특성과 보안 현실에 맞춘 최적의 생성형 AI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 국내 기업들이 빠르고 안전하게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따라 SK㈜ C&C는 자연어 챗봇·데이터 플랫폼·생성형 AI 등 AI 주요 분야별 연구 및 실제 산업 현장에서 AI 데이터 시스템 구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생성형 AI 토털 서비스’를 소개한다.

/최빛나 기자 vitna@



(왼쪽부터) o9 Solutions 차크리 가테무칼라(Chakri Gottemukkala) CEO(공동창업자), 산지브 시두(Sanjiv Sidhu) 회장(공동창업자) 삼성SDS 황성우 대표이사(사장), 송해구 솔루션사업부장(부사장), 안정태 경영지원실장(부사장)이 계약을 체결하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SDS

삼성SDS, 글로벌 SaaS 솔루션 공동개발

o9 Solutions·엠로와 전략적 협력
연내 개발 완료, 내년 글로벌 선도

삼성SDS는 미국 공급망 플랫폼 선도 기업 o9 Solutions(오나인솔루션즈), 국내 1위 구매공급망관리(SRM) 솔루션 기업 엠로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고 글로벌 구매공급망관리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공동으로 개발 및 판매한다고 11일 밝혔다.

각자 다른 강점을 가진 3사가 협력해 공급망 관리를 혁신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윈-윈-윈’ 관계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공급망 관리는 코로나 19 팬데믹과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로 인해 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뛰어난 솔루션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도 커지고 있다.

삼성SDS를 비롯한 3사는 이 혁신 솔루션의 개발을 연내에 완료하고, 2024년부터 고객을 확보해 글로벌 선도 솔루션으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삼성SDS는 지난 3월 엠로 지분을 인수해 구매공급망관리 솔루션을 확보한 데 이어, 이번 협력으로 o9 Solutions의 글로벌 SaaS 플랫폼과 글로벌 사업망까지 확보하게 됐다.

/최빛나 기자

삼성, 4년연속 ‘장애인용 TV 공급자’ 선정

삼성전자는 방송통신위원회 ‘시각·청각 장애인용 TV 보급사업’ 공급자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4년 연속이다.

이 사업은 방통위가 시청각 장애인도 차별 없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TV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저소득층뿐 아니라 전체 시청각 장애인으로 대상을 확대, 지난해 5000대에서 올해 2만대가

지 규모를 대폭 늘렸다.

삼성전자는 공급자로 선정돼 ‘접근성 바로가기 메뉴 편집 기능’을 새로 추가한 40형 풀HD 스마트 TV를 공급할 예정이다. 사용자가 필요한 기능만 화면에 보이도록 편집할 수 있어 다양한 접근성 기능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김재용 기자 juk@

버스 속
소소한 재미
버스족(族)
BUS JÖK

버스 매일 탑승하시나요?
서울 시내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소소한 재미를 선물합니다.



[버스족 이벤트 참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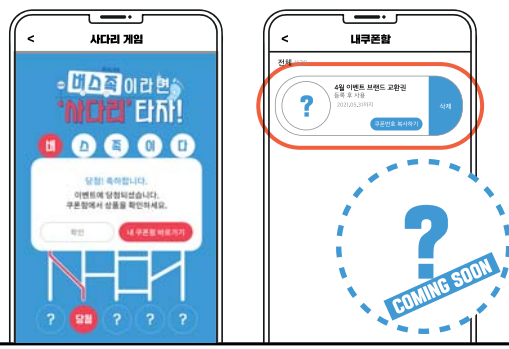
- 1 서울 시내 버스를 타고
YapTV 속 콘텐츠를 본다.



- 2 영상 속 QR코드를 촬영한다.
※버스족 앱의 QR촬영 카메라만 참여 가능!



- 3 이벤트 참여하면
[다양한 브랜드] 선물이 쏩!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버스족을 검색하세요.



‘半 반등 기대’ 코스피 사고, ‘2차전지 과열’ 코스닥 팔았다

〈반도체〉

외국인 투자자, 국내 주식시장 행보
KRX, 코스피 5.51p ↓ 2491.00 마감
지난달 코스피 9조545억 사들여

코스닥시장선 올 1조9139억 팔아
매도 상위종목에 포스코홀딩스 등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엇갈린 투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 업황 반등 기대감으로 인해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2차전지 과열 논란으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비중을 축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높아 외국인 자금 유입이 본격화되는 시기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51포인트(0.22%) 내린 2491.00에 거래를 마쳤다. 같은 기간 코스닥 지수는 5.20포인트(0.63%) 하락한 824.54에 장을 마감했다. 최근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순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5.51포인트(0.22%) 내린 2491.0에, 코스닥지수는 5.20포인트(0.63%) 내린 824.54에 장을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5원 오른 1326.3원을 보였다.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국민은행 스마트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매수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외국인은 연초부터 지난달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9조 545억원 어치를 매수한 데 이어 이달 들어서도 7805억원을 사들이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 반영된 흐름에 더해 원·달러 환율이 더 올라가기는 어렵겠다는 판단으로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 환율이 높은 것은 경상수지 적자,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

등인데 이런 것들이 점차 완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국내 대표 반도체주인 삼성전자를 8조281억원 사들였다. 이어 현대차(1조 1550억원), 삼성SDI(8430억원), 기아(5271억원), LG전자(4992억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4735억원), 현대모비스(4385억원), 삼성엔지니어링(3439억

원), 하이브(3163억원), 현대모비스(3049억원) 등을 사들이며 대형주 위주의 순유입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에 외국인들은 올들어 코스닥시장에서 1조9139억원을 순매도하는 등 매도우위 행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과열 논란을 겪은 2차전지 관련주를 중심으로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들의 순매도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2차전지 관련주인 포스코홀딩스

(3조6754억원), 에코프로(1조711억원), 포스코퓨처엠(3815억원), SK이노베이션(3124억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정운 대신증권 연구원은 “2차전지 관련주가 급등하면서 실적과 주가 간 괴리율이 커졌었다”며 “최근 실적발표가 나오면서 괴리율을 좁히는 국면에 들어감에 따라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쏟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강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으나 증시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이러한 순매수세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코스피가 저점 근처에 도달한 것이 아니냐는 인식들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으나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 유입이 본격화되는 시기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매수세와 매도세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시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SG발 주가조작 논란 확산…증권사 신뢰 ‘뚝’ 아파트값 한달새 2억 ↑…주택시장 ‘꿈틀’

키움 이어 유진투자증권도 연루
“CFD 위험성 고지도 미흡했다”
피해자들 손해배상 청구 나서

“주가하락기, 공매도처럼 하락폭 확대
부작용 방지 제도 구체적 마련을”

증권사 임원들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연이어 터지면서 업계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증권사들이 공격적으로 판매해 온 차액결제거래(CFD)가 이번 사태의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신속한 재발 방지 대책이 요구된다.

11일 증권가에 따르면 키움증권에 이어 유진투자증권의 임원진도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되면서 ‘증권가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증권사들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피해자들은 CFD 판매량에 비해 위험성 고지도가 미흡했다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섰다.

CFD란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뉴시스

않고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하며 차익을 정산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SG발 폭락 사태의 진원지로 꼽히기도 한다. 일부 증거금 납입으로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지분공시 의무 등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CFD 거래 잔액은 2019년 말 1조 2713억 원에서 2020년 말 4조 7807억원으로 급증하다가 2021년 말에는 5조 4050억원을 기록했다. 3월 말 기준 CFD 거래 잔액이 가장 많은 증권사는 교

보증권(6180억 원)이며, 다음으로는 키움증권(5576억 원), 삼성증권(3503억 원), 메리츠증권(3446억 원), 하나증권(3400억 원) 순이다. 이외 유진투자증권(1485억 원), DB금융투자(1400억 원), 한국투자증권(1126억 원)의 CFD 거래 잔액도 1000억 원을 넘겼다. 올해 1~2월 두 달간 13개 증권사의 CFD 거래대금은 4조 666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키움증권과 교보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DB금융투자 등은 CFD 신규가입·신규매매를 차단했다. 하나증권도 CFD 신규 계좌 개설을 중단했으며, KB증권은 1인당 거래 한도를 10억 원으로 제한했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업종 전반적으로 CFD발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미수채권 증가 시 충당금 적립이 불가피하고, CFD 신규 가입 중단 및 향후 금융위의 CFD 제도 개선 등으로 향후 CFD 관련 손익이 위축될 공산도 크다”고 분석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용인 ‘버들치마을 성복자이 2차’ 157㎡
지난달 10.6억 거래 3월 대비 2.1억 ↑
“부동산 규제완화, 효과 보이는데”

주택업체들이 분양을 서두르고 있다. 서울·수도권 곳곳에서 아파트값이 최근 올초 대비 2억원 이상 오른 단지가 나타나는 등 반등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주요 건설사는 늦췄던 분양 시기를 재검점하는 분위기다.

11일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경기 용인시 ‘버들치마을 성복자이 2차’ 전용면적 157㎡의 경우 4월 10억6000만원(8층)에 거래돼 지난 3월 8억5000만원(4층)보다 2억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서구 ‘청라 센트럴 에일린의뜰’ 84㎡의 경우 지난해 말에서 올초까지 5억9000만~6억5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지난 3월 7억1000만원(30층)에 실거래가 이뤄졌다. 확실히 작년 말과 올해 초와는 다른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 실거래가

격지수 자료에서도 ㎡당 수도권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은 ▲2022년 11월 661만원 ▲2022년 12월 673.3만원, ▲2023년 1월 721.2만원 ▲2023년 2월 755.8만원 등 상승 추세다.

특례보증자리론 출시, 은행들의 부동산 담보 대출 금리 하락,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LTV를 80%까지 허용,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등 정책 기조가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이어진 부동산 규제 완화 효과로 보인다”며 “내집 마련 수요자들은 브랜드 대단지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 볼 만 하다”고 말했다.

여름철 수도권 분양시장에서는 대어급 단지가 속속 분양한다. 그중에서도 오는 6월 롯데건설은 경기 시흥시 은행동(은행2지구 1·2블록) 일원에 짓는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 84㎡(A, B, C 3개 타입) 1블록 1230가구, 2블록 903가구를 공급한다. 서해선 신천역이 가깝다. /이규성 기자 peace@

1.5%p 한미 금리차에도 外人투자금 유입

한은, 4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지난달 외국인투자자금 32.5만 달러

올해 4월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 폭이 1.5%포인트(p)까지 벌어졌음에도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순유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 투자가 증가하고, 각국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채권 투자도 이뤄졌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2023년 4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 중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자금

은 32억 5000만 달러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2월(1억 8000만 달러)과 3월(8000만 달러)에 이어 3개월 연속 순유입으로 유입 규모도 확대됐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 금리는 소폭 상승한 반면 신흥국 금리는 대체로 하락했다.

지난 9일 기준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3.52%로 전월 말보다 0.05%p 상승했다. 영국도 3.86%로 0.37%p 올랐다.

다만 주요 신흥국 금리는 대체로 하락했다. 인도네시아는 6.50%로 0.29%p 하락했는데, 재정수지 흑자 규모가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브라질도 12.39%로 0.43%p 내렸는데 금리 점진 기대가 반영된 영향이다.

미국 달러화는 연준의 긴축 기조 완화 기대 등으로 약세를 보였다. 미 달러화 지수인 달러인덱스(DXY)는 지난 9일 기준 101.6으로 전월 말보다 0.9% 하락했다.

파운드화와 엔화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영국 파운드는 1.262로 2.4% 오른 반면, 일본 엔은 135.2로 1.8% 하락했다. 파운드화는 영란은행의 긴축 기조 장기화가 예상되면서 강세를 보였지만, 엔화는 일본은행의 완화적 통화기조 지속 기대에 약세를 보였다.

/나유리 기자 yul115@

DL이앤씨-메이사, 건설 디지털 트윈 MOU

DL이앤씨는 메이사 ‘건설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구축 및 건설현장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DL이앤씨와 메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건설 분야 디지털 트윈 구축에 상호 협력기로 했다. 디지털 트윈이란 현실 세계의 사물을 가상 세계에 그대로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 분야에 적용하면 가상 공간에 현실의 ‘쌍둥이’ 건축물을 만들어 공정·품질·안전 관리부터 설계, 분양, 유지보수 등에 활용 가능하다.

양사는 디지털 트윈 구축을 위해 드론 플랫폼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했

다. 드론을 활용한 건설 현장 촬영 및 분석을 통해 보다 정교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해 건설업계에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이상영 DL이앤씨 주택사업본부 기술담당임원은 “DL이앤씨는 건설정보 모델링(BIM), 인공지능(AI), 드론 등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디지털 트윈 시물레이션을 통해 도출되는 다양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 가능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서 “스마트 건설 솔루션 분야에 강점을 지닌 메이사와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트윈 시장을 지속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尹정부 1년’ 기업 제도 좋아져 가장 개선 된 분야 ‘노동부문’

73개 지역상공회의소 회장 대상
개선된 제도·정책 부문 묻는 질문에
산업부문 19.2%, 조세부문 17.8%
지역경제 활성화 가장 시급 ‘숙제’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기업세제, 첨단산업 등 제도·정책이 개선됐다는 경영계 평가가 나왔다. 노동 부문은 제도·정책이 가장 많이 개선됐지만 동시에 향후 추가 개선이 필요한 분야였다. 지역경제 활성화, 고금리 자금난 지원, 중대재해처벌법 보완등이 개선이 시급한 정책 현안으로 꼽혔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치·외교안보·경제·사회 등 여러 분야에 대한 평가가 줄을 잇는 가운데 경제계가 기업 관련 제도·정책 변화에 대한 기업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국내 전 지역을 대표하는 73개 지역상공회의소 회장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 1년, 기업 제도·정책 개선 성과와 향후 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상의 회장의 66%는 지난 1년간 정부가 추진한 기업 제도·환경 변화에 대

해 ‘매우 개선’(2.7%) 또는 ‘다소 개선’(63.0%)이라고 응답한 반면에 ‘악화됐다’는 응답은 5.5%에 불과했다.

가장 개선된 제도·정책 부문을 묻는 질문에 ‘노동부문’(41.1%)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산업부문’(19.2%), ‘조세부문’(17.8%)을 들었다.

상의는 노동부문을 꼽은 응답이 많은 이유에 대해 정부가 노동개혁 국정과제 추진의지를 밝히고 불법과업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한 점 등이 기업들의 큰 공감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구체적인 개선사항 가운데 실효성이 높은 과제로는 ▲불법과업 엄정대처 등 노사관계 법치주의 확립(56.2%), ▲첨단산업특구 지정 등 첨단산업 육성(46.6%), ▲국가전략기술 등 투자세액공제 확대(45.2%),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 등 산업 인력공급 개선(41.1%)·원전산업 활성화 등 에너지 전환 정책(41.1%) 순으로 답했다.

국상의 회장들은 향후 추가 개선이 필요한 제도·정책으로 ‘노동부문’(32.9%)을 많이 꼽았고, ‘규제부문’(21.9%), ‘경제부문’(16.4%) 등이 뒤를

이었다.

상의는 노동부문에 대해 추가개선 필요의견이 많은 이유로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보완 등의 국회 입법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시급한 정책현안으로는 ▲과감한 세제혜택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64.4%), ▲정책자금 공급확대 등 고금리 자금난 지원(61.6%), ▲과도한 처벌규정 완화 등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보완(58.9%), ▲규제혁신 속도감 제고(50.7%) 순으로 응답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노동, 산업, 조세, 공정거래, 규제 등 많은 부문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기업 환경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다”면서 “무역수지 적자와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업의 혁신역량 발현을 저해하는 경직된 제도·정책을 개혁하는 윤석열 정부의 ‘민간 주도 시장경제 전환’ 정책 기조를 견지해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희망의 집짓기’ 사업 시멘트 전량 후원

아세아-한라시멘트
한국해비타트와 23년째 후원

아세아시멘트와 한라시멘트가 한국해비타트의 ‘희망의 집짓기’ 후원을 23년째 이어간다.

아세아시멘트, 한라시멘트는 2023년 희망의 집짓기 사업에 쓰이는 시멘트와 드라이몰탈 전량을 무상지원한다는 내용으로 각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역삼동 아세아시멘트 본사에서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한라시멘트는 지난 2001년부터 업계 최초로 한국해비타트 희망의 집짓기 사업에 사용하는 시멘트 후원을 시작했다. 이후 한라시멘트가 아세아시멘트의 자회사로 편입된 2018년부터는 양사가 함께 후원에 참여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물류비를 포함해 시멘트, 드라이몰탈 전량을 지원한다. 아울러 올 여름에는 희망의 집짓기 광양 건축 현장에 임직원 및 가족들이



아세아시멘트·한라시멘트 임경태 대표(왼쪽)가 한국해비타트 윤형주 이사장과 후원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세아·한라시멘트

자원봉사로 참여해 희망의 손길을 나눌 예정이다.

아세아시멘트·한라시멘트 임경태 대표는 “아세아시멘트와 한라시멘트가 지속적으로 후원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린다”며 “현장 봉사 활동에도 두 회사 임직원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은 만큼 앞으로도 계속 좋은 관계를 이어 가길 바란다”고 답했다.

/김승호 기자



‘인터썸 2023’에 마련한 LX하우시스 전시관 전경.

SK매직, 쿠쿠홈시스와 ‘특허 소송전’ 돌입

손해배상액 청구·판매금지 촉구
얼음정수기 ‘4 way valve’ 기술
쿠쿠홈시스 “기술 방식 달라”

SK매직이 쿠쿠홈시스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SK매직은 쿠쿠홈시스에 대해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식재산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에 이달 초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SK매직이 쿠쿠홈시스가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기술은 자사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특허 제 10-2464193호’로 얼음정수기에 4-way valve를 적용해 정수기의 소형화 및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기술이다. SK매직 얼

음정수기는 해당 특허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 받아 ‘2019년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SK매직은 쿠쿠홈시스의 ‘인앤아웃 아이스 10’S 정수기’와 ‘ZERO 100S 끓인물 냉온정 얼음정수기’가 해당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특허 권리 행사를 위해 쿠쿠홈시스에 판매 금지 경고장 발송 및 소송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태다.

SK매직 관계자는 “쿠쿠홈시스와 특허 관련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소송 전에 경고장 발송 후 시간을 두고 답변을 기다렸지만 본 건에 대한 해결 의지가 높지 않아 소송을 강행하게 됐다”며 “오랜 기간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투자해 어렵게 개발한 자사의 특허를 지키기 위해 쿠쿠홈시스 해당 모델

의 즉각적인 판매 금지 촉구와 함께 해당 모델의 판매로 추산되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쿠쿠홈시스는 SK매직의 소송 제기에 대해 “SK매직이 주장하는 4-way valve의 특허는 액체 상태의 냉매를 탈빙에 사용하는 것을 특정해 등록받았지만 당사는 기체 상태의 냉매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기술이 다르다”면서 “게다가 SK매직의 해당 특허는 특허 출원일 이전에 일본과 국내에 공개된 선행기술이 존재하는 것으로 기술 차이점이 분명하고 해당 내용에 대한 상호 구체적인 대화 없이 일방적인 특허 침해를 주장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입장을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LX하우시스 ‘친환경’ 가구용 필름 유럽 공략

獨 ‘인터썸 2023’서 70여종 선보

LX하우시스가 유럽 가구용 필름시장 추가 공략에 나섰다.

가구용 필름이란 가구 소재인 합판(MDF/PB) 표면에 붙여 다양한 디자인을 표현하는 표면 마감재를 말한다.

LX하우시스는 지난 9일부터(현지 시간 기준) 12일까지 독일 쾰른에서 열리는 ‘인터썸 2023’에 참가해 친환경 및 고기능성 가구용 필름 70여종을 선보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인터썸’은 1959년부터 시작한 가구기자재 전시회로, 올해에는 전세계 가구원부자재·가구가공설비 관련 1600여개 업체가 참가했다.

LX하우시스는 이번 전시회에서 친환경성과 자원 재순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럽시장 공략을 위한 맞춤형 제품 ‘바이오 쉴드(BIOSHIELD) 리사이클 가구용 필름’을 처음으로 선보이는 등 ‘지속가능성(ESG for sustainability)’을 테마로 전시관을 구성했다.

국내외 시장에 활발하게 공급하고 있는 플라스틱 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든 ‘리사이클 가구용 필름’과 여기에 더해 표면 코팅층까지 식물에서 추출한 원료를 혼합 적용해 친환경성을 극대화한 ‘바이오 쉴드 리사이클 가구용 필름’이 유럽 가구 회사 관계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김승호 기자

‘홍콩 여행’ 공짜 항공권 2.4만장 풀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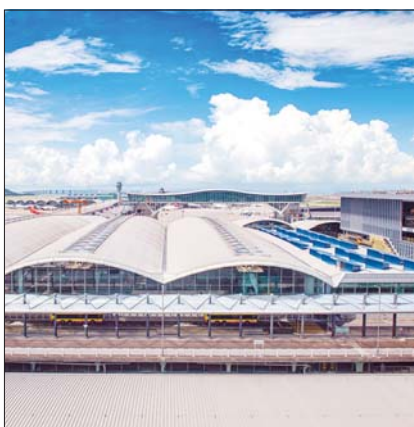
관광 활성화 위해 16일부터 시작

홍콩국제공항(HKIA)은 한국의 여행객들에게 2만4000여장 이상의 무료 왕복 항공권을 제공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홍콩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 세계의 여행객들이 홍콩을 방문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총 50만 장의 무료 왕복 항공권을 제공하는 홍콩국제공항(HKIA)의 ‘월드 오브 위너스(World of Winners)’ 글로벌 항공권 증정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일환으로 진행된다.

한국인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오는 오는 16일부터 시작된다. 홍콩의 네 개 국적 항공사인 캐세이퍼시픽항공, 홍콩익스프레스항공, 홍콩항공, 그레이터베이항공이 분담해 홍콩행 무료 항공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과 제주, 부산에서 출발하는 이코노미 클래스 왕복 항공권이 증정된다.

무료 항공권 당첨자들은 홍콩에서의 숙박과 쇼핑, 엔터테인먼트 등을 즐



홍콩국제공항 전경.

/홍콩국제공항

길 수 있는 특별한 혜택도 제공받을 수 있다.

/허정윤 기자

홈앤쇼핑, ‘소비자 중심 경영’ 강화

CCM 위원회 발족식 진행

홈앤쇼핑이 소비자 중심 경영을 강화한다. 홈앤쇼핑은 지난 10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CCM위원회’ 발족식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홈앤쇼핑 CCM위원회는 소비자중심의 경영문화를 정착하고 전사 관점에서 소비자중심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입한 의사결정기구다.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이성한 경영지원본부장 겸 최고고객책임자를

위원장으로 위촉했으며, 실행력 높은 협업과 개선 활동을 위해 실무 담당 팀장급을 위원으로 뒀다.

CCM위원회는 매 분기 1회 정기회의를 통해 ▲소비자중심경영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프로그램 개발 ▲전사 관점의 소비자중심경영 활동 점검 및 성과 모니터링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개선 활동 전개 ▲소비자중심경영 성과에 대한 포상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한화진 “4대강 보 활용 공업용수, 산업 육성·발전에 직결”

환경장관, SK하이닉스 이천공장 방문
“보, 가뭄과 관련 유용한 국가자산
수위 관리면 더 많은 물 공급 가능”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아 한강 4대강 보를 방문해 보를 산업적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 장관은 직전 취임 1주년 기념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에 대해 과학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지난 10일 경기도 여주시 여주보와 인근 SK하이닉스 이천공장을 방문해 보 활용 현황을 점검했다.

한강 유역에는 소양강댐, 충주댐, 뽕성댐 등 다목적 댐 3곳과 여주보, 이포보, 강천보 등 3개 다기능 보를 비롯해 18개 수자원 시설과 보가 있다. 한강 보 3곳은 2009년 11월 ~2012년 10월까지 건설, 준공된지 10년이 넘었다. 저수량은 가뭄 시에도 3400만톤 수준으로, 여주보 등 한강 3개 보가 하천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해 보 인근 35개 취수장과 양수장에서는 연간 약 3억톤의 물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10일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를 방문해 공업용수 취수현장과 초수순수 제조공정을 점검하고 있다. /환경부

취수한다. 여주보 상류 300m에 위치한 SK하이닉스 취수장이 있고, 매일 11만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한다.

한 장관은 여주보를 둘러본 뒤 SK하이닉스 이천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보는 최근 가뭄과 관련해 유용한 국가 자산이고 인프라다”며 “여주보는 반도체 특히 SK하이닉스에 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살펴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4대강 보 활용에서

공업용수는 산업 육성 발전과 직결된다”면서 “현재 16개 보에서 공급할 수 있는 물이 6억3000만톤 정도인데 수위를 관리하면 더 많이 공급할 수도 있다”고 보 활용을 재차 강조했다.

한 장관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언급하면서 “2024년부터 하루 27만톤의 용수가 추가로 필요하다”며 “한강 여주보 구간에서 농업용수, 공업용수가 필요로 한 곳에 추가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에는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이라는 위상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4대강 보를 통해 산업체에서 필요한 용수를 안정적으로 취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김형수 SK하이닉스 안전·보건·환경담당 부사장 “반도체 생산 위해 양질의 용수 확보 필요한데, 여주보를 통해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다”며 “여주보 설치 전엔 물의 양에 변동성이 있었지만 최근엔 사업에 어려움이 없다”고 전했다.

한 장관은 이날 취재진에게 “올해 연

말까지 4대강 보 활용방안을 포함한 한강과 낙동강, 금강 유역 가뭄대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앞서 호남지역 가뭄대책을 발표하며 영산강·섬진강에 위치한 승촌보와 죽산보를 ‘물그릇’처럼 쓰겠다면서 권역별 수요에 맞춰 4대강 보를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장관은 “댐과 보, 하구둑을 연계해 홍수와 가뭄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라며 “영산강·섬진강 가뭄대책에 승촌보와 죽산보 활용을 넣은 것처럼 연말까지 나머지 한강, 낙동강, 금강 유역도 가뭄 대책을 만들고 보 활용 방안도 포함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취임 이후 보를 보답해 활용하겠다. 과학적으로 활용하겠다. 주민 동의 없는 보 해체는 하지않겠다고 말씀드렸다”면서 “(전 정부에서)보 해체 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과학 기술에 기반한 결정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하도급대금 미지급 횡포… 레즐러 제재

계약서에 불공정 특약도 설정
공정위, 지급·재발방지 명령

중소 태양광 시공사인 레즐러가 하도급대금 일부를 주지 않고, 하도급 계약서에 불공정한 특약을 설정하는 등의 횡포를 부려 규제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레즐러가 수급사업자에게 전기공사를 시공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2억8029만원과 지연이자 1351만2000원을 미지급한 행위와 하도급 계약서에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지급명령과 함께 향후재발방지 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레즐러는 전기공사업과 태양광발전소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

로, 2020년 9월과 2021년 5월 철원두루미 2차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중 전기공사 2건을 수급사업자에게 시공위탁했다.

수급사업자가 2021년 1월과 8월 각각 전기공사를 완료했지만,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2억802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하도급대금 3억1041만원 중 1억2099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초과기간 263일에 대한 지연이자 1351만2000원을 주지 않았다.

레즐러는 또 이들 수급사업자와 전기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기일을 개발행위 준공 후 14일 이내로 약정하는 등 부당

한 특약을 설정했다.

태양광발전소의 전기공사는 수급사업자가 전기공사를 완료하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사용전 검사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사용전 검사결과 합격 판정을 받으면 레즐러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정상 수령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레즐러는 목적물 수령일인 사용전 검사일로부터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계약내용과 상관없이 준공검사를 기준으로 잔금 지급 기일을 약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박성호 소진공 이사장(가운데)이 SNS 기자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진공

소진공, SNS 기자단 발족… 백년가게 홍보

총 90명 10월까지 6개월간 활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SNS 기자단을 발족하고 백년가게, 전통시장 등을 알리기 위해 나섰다.

소진공은 지난 10일 대전 전용교육장에서 발대식을 갖고 대국민 SNS 기자단 90명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국민 SNS 기자단은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온누리상품권,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등에 관한 정책안내와 체험수기를 온라인으로 홍보·확산한다.

소진공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약 일주일간 공단 지원사업에 관심 있

는 대학생·일반인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았다. 신청자 280명 가운데 SNS 활동이 활발하며 콘텐츠 제작경험이 있는 참여자 최종 90명을 선정했다.

선발한 기자단은 이달부터 10월까지 총 6개월 동안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소개·체험하기 ▲온누리상품권 이벤트 취재·사용하기 ▲스마트공방 사업소개·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스토리 취재 등을 직접 기획하고 공단 블로그 및 유튜브 등 공식채널에서 홍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승호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청년 창업가’ 키운다

중소벤처기업부, 비전 선포식 개최
영문명칭 ‘K-Unicorn Academy’ 발표

전국에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가 글로벌 역량을 갖춘 유망 청년 창업자 양성기관으로 탈바꿈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세빛섬 플로팅아일랜드 컨벤션에서 청년창업사관학교가 ‘글로벌 역량을 갖춘 유망 청년 창업자 양성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비전 달성을 위해 우선 청년 창업자들이 해외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영문 신규 명칭으로 ‘K-Unicorn Academy’를 발표했다. 청년 창업사관학교의 유형을 고려해 글로벌 진출 지원 기능 및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 프

로그랩도 강화한다.

특히 이번 글로벌 비전 체계 수립과 관련해 문제점 파악부터 개선안 도출에 이르기까지 청년층(2030 자문단, 청년보좌역 등)이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청년 창업자 등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청년창업사관학교 1기(2011년도) 졸업생인 안성우 직방 대표를 초대 명예교장으로 위촉했다.

안성우 대표는 “청년창업사관학교 명예교장으로 위촉돼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청년 창업 및 현장 경험을 살려 청년창업사관학교가 글로벌 창업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현재 전국에 18곳이 있다. 이 가운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5곳을 직접 운영하며 나머지 13곳은

민간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졸업기업이 후배 창업자의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가칭)청창사 동문 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우선 올해는 졸업기업 동문회 등과 협력해 졸업기업을 대상으로 펀드 조성과 관련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창업교육은 창업기초분야에 대한 이론 중심 교육에서 신산업·인문·IT 분야 ‘특강형’ 교육, 동료 및 선배의 경험과 노하우 공유를 위한 ‘실전형’ 교육 중심으로 개편해나간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처음 생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청년 창업자들이 직방을 잇는 새로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중진공, 수출바우처 기업에 최대 1억 지원

23일까지 2차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이달 23일까지 2023년 수출바우처 사업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11일 중진공에 따르면 ‘수출바우처 사업’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바우처를 통해 디자인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해외인증 등 13가지 해외 마케팅 메뉴판에서 원하는 수행기

관(서비스 공급기관)을 선택해 수출지원 서비스를 활용하는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사업이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는 전년도 수출 규모에 따라 3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수출바우처를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유한양행

우리 가족 모두 **마그네슘 충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가정의 달 5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마그네슘
함량 UP
신제품 출시

마그네슘 부족으로 인한
마그비스피드 액 근육경련 | 육체피로 | 체력저하
마그비스피드 더블액션 액 Double Action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광고심의필 : 2023-1668-002201

1000억 지원 ‘글로벌大’ 속도… 찬반투표 거부 등 ‘이견’

부산대·부산교대, 구성원 반발 극심
충남대·한밭대, 강원대·강릉원주대
반대 현수막·천막시위 등 벌어

5년간 대학 당 최대 1000억원을 지원 하는 글로벌대학 사업 선정을 앞두고 대학 통합을 전제로 해당 사업에 참여 하려는 대학에 내홍이 일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글로벌 사업을 발표하면서 ‘대학 간 통합’을 통한 캠퍼스 자원 공유, ‘유사 학과 통합’ 등을 혁신 사례로 제시했다.

11일 대학가에 따르면, 글로벌 사업에 공동지원하기 위해 통합을 논의 중인 대학과 교내 구성원 간 마찰음이 커지고 있다.

부산교대가 부산대와 통합을 전제로 10일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 글로벌대학 사업 참여 찬반 투표에 부산교대 학부생 98%이 투표 보이콧으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학부생 전체 1453명 중 투표 인원은 단 33명. 교수와 직원, 학생 등 총 인원 2202명 중에는 315명이 참여해 181명이 이를 찬성했지만, 학생들 대부분은 이를 반대한 셈이



부산대와 부산교대가 대학 통합을 전제로 교육부 ‘글로벌대학 사업’ 참여를 추진하자, 부산교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줄속 추진 글로벌 사업에 반대한다’며 11일 오전 11시 30분 부산교대 학생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부산교대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다.

부산교대 학생들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한다며 반발한다. 부산교대가 부산교대에 대학 통합을 제안하고 6일 후인 지난 9일 부산교대 측이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튿날 구성원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투표를 강행했다는 이유에서다.

방인성 부산교대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9일 진행된

글로벌대학 설명회에서 학생들이 글로벌대학과 관련된 질의를 했을 때 총장, 기획처장, 교수협의회장 모두 다른 대답을 하는 등 대학의 존폐를 결정하는 사안에 대해 대학본부조차 합의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며 “교육부는 이번 사업 선정에 있어서 대학 구성원 의견 수렴 결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음에도 현장에서 학생들은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교대는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오

는 15일 대학 평의회에서 이 사안을 논의한 뒤 17일 교수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통합 논의가 다시 시작된 계기는 교육부의 ‘글로벌대학30 사업’이다. 사업 선정 대학은 5년 간 최대 국고 100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총 3조 규모다. 대학 통·폐합 등 과감한 구조개혁이나 미래 교육에 걸맞은 연구·교육의 전환 등을 추진하는 대학에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달 말 해당 사업의 예비 지정 신청을 앞두고 부산교대가 부산교대 측에 ‘두 대학이 통폐합하고 글로벌 사업에 공동 지원하자’고 제안하면서 통합이 추진되는 과정이다.

이번 사업과 함께 대학 통합을 논의하는 대학은 부산대-부산교대 뿐 아니라 ▲충남대·한밭대 ▲강원대·강릉원주대 ▲금오공대·경북도립대·안동대 ▲경일대·대구가톨릭대·대구대 등으로 알려졌다.

충남대와 한밭대, 강원대와 강릉원주대도 비슷한 상황이다.

충남대 교수회도 지난달 캠퍼스 내 “말년 총장의 ‘묻지마 통합’, 그 책임은

누가 지는가”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재하고 “장밋빛 전망에만 기대 성급한 통합이 감당 못할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3차례 입장문을 냈다. 아울러 충남대 총학생회는 같은 시기 “학생 동의 없는 ‘통합 기반’ 혁신을 전면 철회하라”며 1주일간 대학본부 앞에서 천막 시위를 벌였다.

한밭대 교수회도 “글로벌 대학 공모를 재검토하라”고 말했다.

강원대도 강릉원주대와 ‘1도 1국립대’ 모델 구축을 목표로 양 대학 통합을 논의하면서 지난달부터 1개월여동안 25여차례에 걸쳐 총장과 단과대학별 간담회를 열었지만 구성원 설득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측은 대학 구성원 의견을 모아 통합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진숙 충남대 총장은 “충남대와 한밭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 간 통합은 단순히 통합이 목적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에게 좋은 대학을 만드는 동시에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두 대학이 지혜를 모아 최선의 통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다 쓴 마스크로 ‘플라스틱 제품’ 만든다

숙명여자대학교, ESG 실천
교내 주요 건물 7곳 수거함 설치

숙명여자대학교(총장 장윤금)가 ESG 실천을 위한 ‘2023 페마스크 업사이클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숙명여대는 10일 학생회관과 중앙도서관 등 교내 주요 건물 7곳에 페마스크 수거함을 설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환경봉사단 SEM 학생들과 함께 교내 구성원이 사용한 페마스크를 수거해 여러 플라스틱 제품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페마스크를 재활용하려면 비치된 가위로 마스크 코핀을 제거한 뒤 각각 수거함에 넣으면 된다. 페마스크 업사이클링에 참여하면 새 마스크도 받을 수 있다.

페마스크 수거함은 숙명여대 산업디자인과에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새로 디자인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마스크가 사용 후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가운데)이 10일 오전 학생회관 앞에 설치된 페마스크 수거함을 이용하고 있다. /숙명여대 제공

에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19용 마스크가 일반쓰레기로 버려지면, 분해까지 수백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회용마스크는 주로 폴리프로필렌(PP) 소재로 이뤄져 있어 수거 후 플라스틱 제품으로 다양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

그동안 숙명여대는 친환경 스마트팜 시설을 구축하고, 영원무역홀딩스 이월

상품으로 ‘업사이클링 패션쇼’를 진행하는 등 ESG 실천에 앞장서왔다.

장윤금 총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캠퍼스에서 마스크가 많이 사용되는데, 페마스크 수거함이 없어 재활용하지 못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다”며 “앞으로도 대학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ESG 대표 대학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올 여름 한강서 ‘수상 스포츠’ 즐기기

‘스포츠 팔레트 in 한강’ 행사 개최

서울시는 한강 곳곳에서 다양한 스포츠 행사를 개최하는 ‘스포츠 팔레트 in 한강’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7월 1~2일에는 반포한강공원(테리마리나)에서 국내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2023 서울특별시장배 요트대회’가, 8월 24~27일에는 잠실 한강공원(모래일광욕장)에서 14개국, 100여명의 국내·외 선수들이 참가하는 ‘2023 서울 국제 여자 비치발리볼 대회’가 열린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수상·수변 스포츠 교실’도 운영된다. 올여름 한강공원에서는 요트, 윈드서핑, 패들보드뿐만 아니라 컬링과 볼링이 결합된 ‘플로어컬’, 탁구와 배트민턴이 혼합된 ‘핸들러’ 등의 이색 스포츠를 배울 수



한강몽땅 종아배 경주대회 참가자 모습. /서울시

있다.

이외에 ▲가장 빠르고 별난 배를 만들어 보는 ‘나만의 한강호 경주대회’ ▲일몰과 야경을 배경으로 하는 ‘레인보우브릿지 요트투어’ ▲수변 경관을 즐기는 ‘한강 킥카누 물길여행’ ▲안전한 자전거 도로 문화 정착을 위한 행사 ‘슬로우 자전거 대회’가 마련된다.

/김현정 기자 hjk1@

서울시, 반지하 주택에 차수판 등 설치

건축사 532명 투입 전수 조사 실시

서울시는 이달 중 관내 반지하 주택 약 22만 가구에 대한 전수 조사를 마치고, 내달 말까지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건축사 532명을 투입해 반지하 주택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인 뒤 침수 예방시설이 필요한 곳에 차수판, 개폐식 방범창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반지하를 비롯해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상향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시는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 입주와 보증금, 이주

비 등을 지원한다.

주거상향대상은반지하·고시원·비닐하우스 같은 비정상 거처에서 3개월 이상 살고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올해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뿐만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보증금 전액을 무이자로 지원받게 되며, 민간 임대주택 이주 시에도 5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용자가 가능하다.

시는 취약계층의 주거 이전 부담을 덜기 위해 이사와 생필품 구입 등에 사용된 실비를 40만원까지 지원한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스마트 축사시설 보급 207억 투자

‘축산ICT 융복합 확산사업’ 추진

경기도가 올해 도내 91개 농가를 대상으로 국비 62억 원 등 총 20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2023년 축산ICT 융복합 확산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축산농가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모니터링·원격제어 등 자동화

시설·장비를 보급해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한다.

앞서 도는 22년 9월부터 23년 4월까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169개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서류심사, 전문가 심의 등의 절차를 진행해 고양시 등 14개 시군 91개 농가를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축종별로는 ▲한우 20개 농가 ▲낙농 40개 농가 ▲양돈 18개 농가 ▲양계 11

개 농가 ▲육우 1개 농가 ▲육용오리 1농가다.

다른 시도의 경우 농식품부 사업 지침에 따라 국비 30%, 융자 50%, 자부담 20% 비율로 지원하고 있지만, 도는 국비 30%, 지방비 20%, 융자 30%, 자부담 20%의 비율로 지원해 농가의 부담을 덜어 주는 데 주력했다.

선정된 91개 농가는 축종별 사육두수를 고려해 농가 1곳당 최대 15억 원 한도 내에서 축산ICT 융복합 장비를 지원받아 ‘스마트축사’ 조성에 사용할 수 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롯데쇼핑 ‘터널’ 지났다… 1분기 영업이익 64% ↑

〈1125억원〉

매출은 5.5% 줄어 3조5616억
백화점·마트·이커머스 호조
동남아 중심 해외사업 회복세
하이마트·홈쇼핑 부문서 부진

롯데쇼핑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3.7% 증가한 1125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3조5616억원으로 5.5% 감소했고, 당기순이익은 578억원으로 16.4% 줄었다. 장기화하는 불황 속에서 매출은 줄었으나, 사업의 내실을 다져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하는 성과를 냈다는 분석이다.

롯데 측은 “백화점과 마트, 이커머스 등의 영업이익이 개선됐다. 동남아 중심의 해외 사업 역시 회복세도 지속 중”이라며 “다만, 가전 시장의 전체적인 부진 및 새벽 방송 중단 등의 영향으로 하이마트와 홈쇼핑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부진했다”고 11일 설명했다.

롯데백화점의 1분기 매출은 7960억원으로 전년 대비 7.09%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21.1% 늘어난 1310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의 엔데믹(풍토



/롯데쇼핑

화)이 본격화하며 여성·남성 등 패션 상품군의 매출이 고신장한 덕에 기존점 매출이 6.3% 증가했다. 해외사업도 실적이 개선돼 동남아 지역 매출이 10.5% 증가했다.

롯데마트의 경우 매출은 1조4470억원으로 2.4%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320억원으로 91.8% 증가했다. 롯데슈퍼의 매출은 3260억원으로 6.7%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234.8% 증가한 84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주고객층인 중산층의 소비가 둔화

하면서 매출이 감소했으나 점포 및 인력 효율화, 판매비 개선 작업이 성과로 내 영업이익 크게 신장했다는 분석이다.

롯데마트와 슈퍼는 올해 통합 소싱(조달)과 상품 코드 통합을 진행하고 있는데, 통합이 완료되면 손익이 크게 개선 될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온’ 등 이커머스는 매출이 10.5% 증가한 290억원을 기록했으며 전년 대비 적자폭이 다소 줄어 영업손실 200억원을 냈다. 롯데온은 ‘롯데온

더뷰티’ 등 뷰티, 패션, 명품 버티컬몰을 적극 론칭하고 있다. 이들 버티컬몰의 매출은 24% 증가했다.

롯데하이마트는 가전 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매출이 6261억원으로 25.6% 감소했다. 영업손실은 260억원으로 적자 폭이 확대됐다.

롯데홈쇼핑은 매출이 16.0% 줄어든 2310억원, 영업이익은 87.6% 감소한 40억원을 기록했다. 새벽방송 정지 영향이 컸다. 컬처웍스의 매출은 1120억원으로 54.3% 증가했다. 영업손실은 110억원으로 적자가 축소됐다. 올해 1분기 일본 애니메이션 작품이 흥행하면서 입장객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김원재 롯데쇼핑 재무본부장은 “1분기 롯데쇼핑 실적은 백화점, 마트, 이커머스 등 쇼핑 사업부를 중심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개선되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며 “올해는 하노이 롯데몰 웨스트레이크를 성공적으로 개점하고, 국내 사업도 내실을 다지기 위한 노력을 통해 실적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CJ웰케아 ‘닥터뉴트리’ 신제품 ‘아쿠아셀 오메가3’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CJ웰케어가 오메가3 제품을 ‘리턴업’ 브랜드에서 맞춤 영양케어 브랜드인 ‘닥터뉴트리’로 변경하고 신제품도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리뉴얼을 통해 흡수율과 섭취 편의성을 높여 효과적으로 오메가3를 먹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CJ웰케어는 오메가3 특유의 비린내로 섭취가 어려웠던 소비자들을 위해 캡슐 크기를 기존 제품의 절반으로 줄이고 장에서 소화되는 ‘장용성 캡슐’을 적용해 비린내를 최소화했다.

아울러, 오메가3의 흡수율을 크게 높이는 새로운 기술도 적용했다. ‘닥터뉴트리 아쿠아셀 오메가3’는 오메가3 지방산 입자를 미세분자로 잘게 쪼개 흡수율을 높이는 ‘아쿠아셀 공법’으로 만들었다. /신원선 기자



세븐일레븐이 단독출시한 ‘당근당근’은 인기 스테디셀러 ‘토마토마’의 후속작이다. /코리아세븐

셀트리온헬스케어 ‘베그젤마’ 유럽 수주 이탈리아·벨기에 입찰

셀트리온헬스케어가 판매 중인 아바스틴바이오시밀러 ‘베그젤마’가 유럽 주요국 입찰에서 잇달아 수주에 성공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유럽 주요5개국 가운데 하나인 이탈리아에서 올 1분기 열린 롬바르디아, 에밀리아로마냐 및 토스카나 주정부 입찰에서 베그젤마 낙찰에 성공했다고 11일 밝혔다. 3개 주정부는 이탈리아 베바시주갑 공립 시장의 약 40%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호 합의에 따라 주별로 2~3년 동안 베그젤마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벨기에에서는 브뤼헤 지역 병원 그룹 및 O.L.V 종합병원에서 개최한 베바시주갑 입찰에서 각각 수주에 성공하면서 이들 병원에도 2년간 베그젤마를 공급하게 됐다.

회사측관계자는 “현지 법인에서 개별 입찰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커머셜 전문 인력들이 성공적으로 추진한 결과”라며 “트룩시마, 허주마 등 기존 항암바이오시밀러가 유럽에서 점유율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베그젤마 처방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실제 베그젤마는 베바시주갑 바이오시밀러 중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생산 수율에 기반한 원가를 바탕으로 현지 법인에서 탄력적인 가격 정책을 펼치며 런칭 초기부터 유럽 주요국에서 의미 있는 성과들을 달성하고 있다.

올해 유럽에서 베그젤마의 출시 지역은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하이트진로, 켈리 100만 상자 판매고

1초에 약 10.2명 판매된 켈리 출시 한달여 만의 성과

하이트진로가 새롭게 선보인 ‘라거의 반전-켈리’가 역대급 출발 성적을 기록하며 ‘테라’에 이어 다시 한 번 강렬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달 4일 출시한 ‘켈리’가 출시 한 달여 만에 100만 상자 판매를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켈리의 판매량은 지난 5월 10일 기준 누적 판매 약 104만 상자 돌파로 약 3162만병(330ml 기준)을 판매했다. 국내 맥주 브랜드 중 최단기간 100만 상자 판매를 돌파했던 테라보다 3일

빠른 속도로, 출시 후 36일 만에 새로운 기록을 달성했다. 이는 1초에 약 10.2명이 판매된 켈리다. 3162만병은 330ml 병 길이를 환산하면 약 7335km로 한반도에서 켈리의 맥아 원산지인 덴마크 최북단 거리까지 달을 만한 수준의 어마어마한 양이다.

하이트진로는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켈리의 판매 속도에 맞춰 4, 5월 출시 초기 생산량을 계획 대비 4배 이상 늘렸다.

마케팅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모델 손석구를 앞세운 광고 영상은 공개 후 조회 수 약 1400만뷰를 기록했으며 인스타그램 등 SNS 상 켈리 관련 소

비자 추천 및 댓글이 약 250만 건을 돌파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또, 브랜드 체험형 팝업 스토어인 ‘켈리 라운지’를 최근 서울, 대구, 부산 총 3개 도시에서 운영해 8만여명의 방문객이 찾았다.

하이트진로는 상반기 동안 켈리의 마케팅 활동을 공격적으로 집중해 단기간 내에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제품의 주 음용층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켈리와 테라의 두 트랙 전략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 국내 맥주 시장 1위 탈환이라는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사조대림 ‘프리미엄 참치컬렉션’ 카톡 선물하기 입점

황다랑어·마라 등 네가지 맛

사조대림이 신제품 ‘프리미엄 참치 컬렉션’ 선물세트를 출시하고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공식 입점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조대림이 새롭게 선보인 ‘프리미엄 참치 컬렉션’은 ▲황다랑어 ▲마라 ▲트리플 ▲알바코 등 총 네가지 다양한 맛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급 참치 선물 세트다. 맛별로 2캔씩 총 8캔으로 구성했다. 네 가지 맛 모두 조리 없이 그대로 먹기도 좋지만 요리의 풍미를 끌어올리는 특별 재료로 활용하기도 좋다.

국내 최초로 ‘투명 안심파게’가



프리미엄 참치 컬렉션

/사조대림

적용되어 어린 아이도 손쉽게 열 수 있으며, 동시에 제품 내용물을 육안으로 먼저 확인이 가능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고급 어종을 사용해 맛과 품질을 한층 더 극대화한 것도 특징이다.

참치 통조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가다랑어’가 아닌 고급 어종 ‘황다랑어’와 ‘날개다랑어’의 통살을 그대로 사용해 담백한 맛과 더욱 풍성하고 쫄깃한 식감을 살렸다.

고급스러운 패키지로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선물로도 안성맞춤이다. 특히 간단한 안주부터 카나페, 샌드위치, 파스타 등 식탁을 다채롭게 만드는 높은 활용도로 집들이 선물로 제격이다.

사조대림은 출시를 기념해 제품 구매시 제품을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조리법을 담은 레시피북을 2천 개 한정으로 증정한다. 이번 신제품은 카카오톡 ‘선물하기’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다. /신원선 기자

세븐일레븐 아이스크림 ‘당근당근’ 출시

세븐일레븐이 11일 아이스크림 ‘토마토마’의 후속작 ‘당근당근’을 단독 출시했다. 아이스크림 ‘토마토마’는 이른바 ‘쭈쭈바’로 불리는 펜슬형 아이스크림으로 오랜 시간 사랑받은 스테디셀러다. 매년 아이스크림 성수기(5월~8월)에 세븐일레븐 펜슬형 아이스크림 매출 5위권 내에 이름을 올린다.

당근당근 아이스크림은 토마토마의 펜슬형 패키지에 당근을 활용했다. 국내산 당근농축액과 사과농축액을 넣어 새콤달콤한 맛을 강조했다며, 미세알음을 넣어 사각거리는 식감을 살렸다. /김서현 기자 seoh@

롯데리아 ‘5300원’ 롯데빙수 개시

롯데GRS가 운영하는 버거 프랜차이즈 브랜드 롯데리아가 다가오는 여름을 맞아 여름철 대표 디저트 ‘롯데리아빙수’를 선보인다.

롯데리아는 1979년 업계 최초 여름 한정 디저트로 빙수 제품을 선보였으며, 빙수는 매년 다양한 모습의 제품으로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대표적인 여름 메뉴 중 하나다.

올해 출시한 롯데리아빙수는 지난해 선보인 ‘롯데빙수’를 바탕으로 고객 설문조사 및 반응을 통해 맛의 밸런스를 보완했다. 주재료인 팔과 아이스크림으로 단맛을 강조하고 후르츠크테일과 딸기잼으로 상큼함을 더한 이번 빙수는 5300원에 즐길 수 있다. 오프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잡·사무실·야외 등 어디서든 롯데리아빙수를 즐길 수 있도록 보냉팩을 이용한 배달 서비스도 운영한다. /신원선 기자

금호리조트, 아시아나CC 리뉴얼... ‘3S 혁신’ 방점

〈만족도·편의성·안전성〉

1단계 시설 리뉴얼 작업 완료
관제 시스템 ‘카카오VX’ 교체

금호리조트가 운영하는 명문 회원제 골프장 ‘아시아나컨트리클럽’이 고객 안전과 편의 향상을 위한 1단계 시설 리뉴얼 작업을 완료했다.

아시아나CC는 ▲고객 만족도 제고(Satisfaction) ▲고객 편의성 증대(Service) ▲시설 이용 안전성 확보(Safety)를 아우르는 ‘3S’에 집중해, 금호리조트가 금호석유화학그룹으로 편입된 시점인 2021년부터 매년 시설 리뉴얼을 활발히 진행해왔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 인프라와 양질의 라운딩 환경을 갖춘 명문 골프장으로서 차별화된 이용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체계적인 코스 관리 솔루션 운영으로 라운딩 환경을 개선해 고객 만



아시아나CC 클럽하우스 전경

/금호리조트

족도를 높였다.

아시아나CC는 지난 2년간 대대적인 코스 점검을 통해 그린 및 페어웨이 배수 시설을 개선하여 우천 시 고객들의 라운딩 불편을 최소화하였고, 이상 기온으로 인한 수재(水災) 예방을 위하여 배수관로를 확장하고 낙석방지 시설을 강화했다.

고객들의 보다 편리한 이용을 위해 전반적인 시설 인프라 개선도 마쳤다. 먼저 클럽하우스 내 엘리베이터를 신설해 이동 편의성을 한층 높였고, 라커룸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새단장했다.

특히 최근 여성 고객 증가에 발맞춰 라커룸 내 화장대를 증설했으며, 시니어층 남성 고객들을 위한 좌식 부스를

추가 설치하는 등 고객 이용 편의 개선에도 힘썼다.

골프장 운영의 관제 시스템도 카카오프장 운영의 관제 시스템도 카카오프장으로 전면 교체하여 무선 통신 기술을 통한 서비스 제고에도 힘썼다. 카카오프장 시스템 도입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통합 제공하여 고객들이 경기 진행 상황과 더불어 스코어 관리를 대시보드에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시아나CC는 최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차세대 벤트그라스 품종인 샤크 품종으로 그린 잔디 초종을 교체해 그린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무인그늘집 내 화장실 확장, 스프링클러 교체, 카트 도로 전면 재포장, 클럽하우스 지붕 교체 등 전반위적인 시설 개선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신한은행-경북도-신보, 중소기업 보호 나서

신한은행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경상북도, 신용보증기금과 ‘대출채권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업무협약식에서 (왼쪽부터)신용보증기금 최원목 이사장,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 신한은행 김윤홍 부행장(왼쪽부터)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신한은행



GS그룹, 제 2회 ‘해커톤’ 경연 개최

GS 그룹사 임직원들의 고객을 위한 문제 해결경연 ‘GS그룹 해커톤’이 개막했다. 올해 2회째를 맞는 GS그룹 해커톤은 장벽을 깨고 혁신으로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은 ‘Break the wall’을 주제로 사업 관행이나 일하는 방식, 나아가 회사간 장벽을 깨고 고객을 위한 문제 해결에 도전하는 실리콘밸리식 혁신행사다. /GS그룹



에탁결제원, ‘ESG 그린캠페인’ 후원

한국에탁결제원 KSD나눔재단은 지난 10일 ‘ESG 그린캠페인 사업’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에 후원금 8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순호 한국에탁결제원 사장(오른쪽), 정형석 밀알복지재단 상임대표가 ‘ESG 그린캠페인 사업’ 후원금 전달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에탁결제원

LG복지재단, 이정아씨 등 3인 ‘LG의인상’ 선정

지금까지 194명에 감사 전해
“헌신·봉사 아끼지 않는 의인들 격려”

새로운 영웅들이 LG 의인상을 받았다.

LG복지재단은 새로운 LG의인상 3명을 선정하고 시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정아 씨는 24년간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돌봤다. 대학생이던 1988년 경기도 부천 야학과 공부방에서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가르치기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왔다. 2004년에는 지역 기반 청소년 공동체 ‘물푸레나무’를 발족했으며, 2011년부터는 무료



이정아 씨



허 성공일 소방교



조연제 경위

급식차량을 운영하기 시작해 2016년 청소년 무료급식소 ‘청소년 십야식당 청개구리’까지 열었다.

이정아씨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보호시설보다 더 절실한 것은 가족처럼 기대어 줄 수 있는 공동

체”라며 “청소년들이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을 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뿌듯하다”고 말했다.

화재 현장에서 목숨을 바쳐 시민을 구한 허 성공일 소방교는 지난 3월 전북 김제시 주택 화재현장에서 70대 부

부 중 탈출하지 못한 남편을 구하기 위해 진입했다가 결국 돌아오지 못했다. 성 소방교는 부임한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더 큰 안타까움을 남겼다.

조연제 경위도 지난 4월 경남 사천 시에서 아내와 산책하던 중 화재 현장을 목격, 80대 노인을 구출하며 LG의 인상에 이름을 올렸다.

LG 관계자는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 헌신과 봉사의 마음을 아끼지 않는 의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LG의인상 선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LG의인상은 사회적 책임으로 의인에 보답한다는故 구분무 회장 뜻을 반영해 제정, 2018년 구광모 대표 취임 후 시상범위를 확대하며 지금까지 194명에 감사를 전했다. /김재웅 기자 juk@

SKT-하나금융, 사회적 기업 지원 맞손

T멤버십 활용 마케팅 지원

SK텔레콤과 하나금융그룹이 통신 고객들을 위한 할인혜택 프로그램 ‘T멤버십’을 활용해 사회적 기업 지원에 나선다.

SK텔레콤과 하나금융그룹은 친환경 사회적 기업인 ‘동구발’과 ‘다정한마켓’을 T멤버십 메인 페이지에 입점시키고, 마케팅 지원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번 제휴를 통해 T멤버십 메인 페이지에 있는 ‘지구를 지킬 때’ 코너에 양사를 소개하고, 론칭 이벤트와 배너 게시 및 안내문자 발송을 지원한다.

또한 SKT와 동구발·다정한마켓은 T멤버십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상시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동구발 상품 구매 고객은 10%, 다정한마켓 상품 구매 고객은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채운정 기자 echo@

삼립식품 공동 창업주 김순일 여사 별세

SPC그룹 허영인 회장 모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모친이자 삼립식품(현 SPC삼립) 창업주인 고(故) 허창성 명예회장의 부인 김순일 여사(사진)가 지난 10일 별세했다. 향년 101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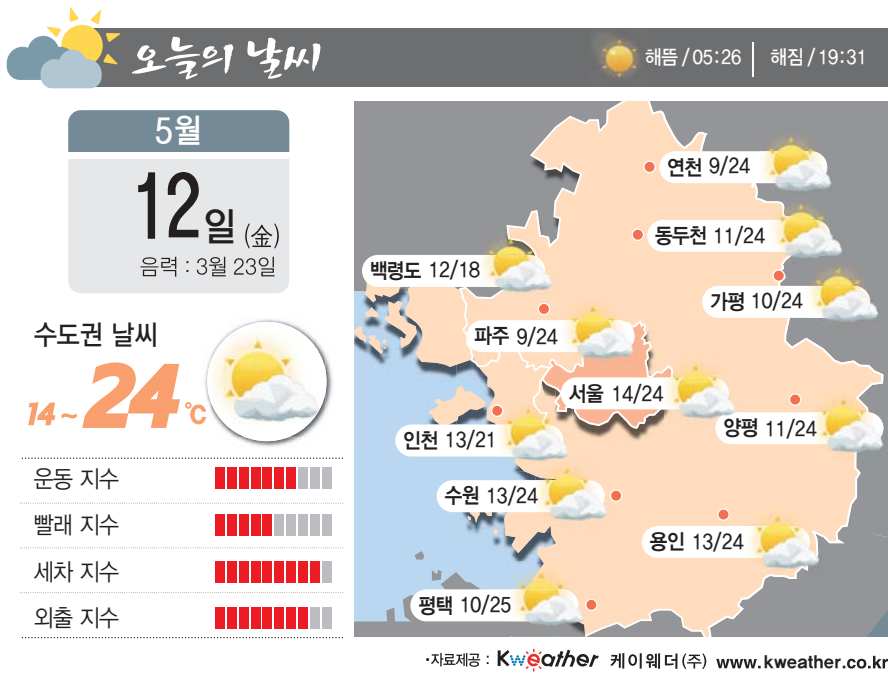
1923년 황해도 웅진에서 태어난 고인은 1942년 허창성 명예회장과 만나 결혼했으며, 허 명예회장이 1945년 창업한 제과점 ‘상미당(삼립식품의 전신)’을 함께 운영했다.

창업 초기 허 명예회장은 제빵기술 수완이 뛰어나 생산관리를 담당했고,



고인은 “제빵은 손끝에서 남는다”는 말을 남기며 경영관리 분야에서 활약했다. 삼립식품 창립 이후에는 이사와 감사로 경영에 적극 참여해 회사의 기틀을 닦고 내실을 다지는데 크게 기여했다.

유족은 허영선 전 삼립식품 회장,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 6남1녀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13일 오전 8시이며 장지는 경기도 이천시 선산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KGC인삼공, 글로벌 면세시장 공략 박차

세계면세 박람회 4년 연속 참가

KGC인삼공사가 글로벌 면세시장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아시아권 확대 및 중동, 유럽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KGC인삼공사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 ‘2023 세계

면세박람회’에 참가했다고 11일 밝혔다.

KGC인삼공사는 2017년 첫회부터 지금까지 연속 4회째 참가하며, 코로나19 이후 4년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박람회를 통해 10년 연속 세계 인삼시장 1위 브랜드 정관장의 대표 제품을 선보였다. /신원선 기자



중견련, 대·중기 신성장동력 발굴 지원

중견련은 지난 10일 서울 마곡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센터에서 서울경제진흥원, 한국표준협회와 ‘대·중견기업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스타트업 매칭 기반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왼쪽부터)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 대표,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강명수 표준협회장이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견련

인사

◆청주상공회의소 △충북지식재산센터장 박치성

부음

▲전길대씨 별세, 전강준(경남신문 논설위원)·강학(㈜젬텍 기술연구소 과장)·강웅(사천해양경찰서 경감)씨 부친상=11일 오전, 창원시 성산구 창원시립삼북공원 장례식장 5호, 발인 13일 오전 7시30분. 055-712-0930

2022년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수상작!



블록버스터뮤지컬

아메도사우루스

2023. **6. 2**(금) - **6. 25**(일) 우리금융아트홀

© STUDIO EON / DAEWON MEDIA



예매 | 인터파크티켓 문의 | 02-764-9102

주최 | 대원미디어 주관제작 | 이지기획 마케팅 | 이제이컴퍼니



금융당국은 없다



박 승 덕 역
냉정과 열정사이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급락 사태’가 최근 자본시장의 화두다. 지난달 24일부터 SG증권에서 특정종목의 대량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 불과 4일 만에 시가 총액 8조원이 증발했다. 8조원 가운데 아무것도 모른채 해당 주식을 샀던 일반투자자가 피해를 봤다. 수 년 간 이유없이 급등했던 종목들이다. 다올투자증권을 제외하면 유통주식 비율이 15~36%대에 머무는 주식이었다. 거래량이 적은 종목이 대부분 이었고, 차액결제거래(CFD) 계좌에서 주가 조작 수사에 대한 사전인지로 추정되는 반대매매가 한꺼번에 뿔었다. 결국 8개 종목(서울가스대성홀딩스 선광 다우데이터 삼천리 하림지주 세방 다올투자증권)이 급락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8개 종목 주가는 나흘간 42~76%나 급락했다. 연쇄 하한가 사태의 진원지는 CFD 계좌였다.

CFD는 실제로 투자하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을 이용해 차익만을 목적으로 매매해 정산이 이뤄진다. 장외파생계약으로 신종 파생상품이다. 증

권사가 레버리지(대출)를 일으켜 투자자에게 돈을 빌려 줘 거래를 통해 수익을 챙기는 구조다. 40%의 증거금(10만원 짜리 주식의 경우 4만원)만으로도 매수 혹은 매도 양방향의 투자가 가능하다. 약 2.5배의 레버리지가 적용된다.

SG증권발 주가하락 사태의 종착지는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 고도화, 지능화된 주가조작 의혹이 어디까지 밝혀지고, 누구까지 어느 정도의 벌이 주어질지 모른다. 문제는 해당종목에 투자했던 개미투자자다. 그래서 금융당국도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다. 수 년간 주가가 이유없이 오르고 주가조작의 그림자가 있었지만 금융당국은 보이지 않았다. 한국거래소의 조화공시 요구 등 경고등도 켜지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2019년 CFD 거래 자격을 완화했다. 금융 투자상품 잔고 요건을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췄다. 그러면서 CFD 거래대금은 2020년 30조9000억원에서 2021년 70조1000억원으로 급증했지만 사태를 인지하지 못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몇 년 전 ‘라임사태’가 다시 떠오른다. 금융당국은 펀드환매 불능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불을 끄기 급급했다. 사모펀드 자산운용사의 부실 운용이 사태를 키웠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그리

고 펀드를 판 판매사를 다달했다. 당시 판매사는 정부의 규제 때문에 자산운용사의 운용 현황을 볼 수 없었다. 과일을 판매하는 상점이 그 과일이 어느 밭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재배되는 지, 어디에 그 과일을 파는 지 파악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썩은 사과’를 판 가게가 모든 책임을 지라며 소비자(투자자)에게 돈을 물어주게 했다.

‘라임사태’의 시작은 금융당국이 규제 완화를 통해 사모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을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춘 것이었다. 펀드공시의무도 없었다. 1억원 이상의 사모펀드 투자자를 의식한 금융당국이 판매사에 투자손실액을 돌려주라고 압박했다. 선진 자본시장에선 볼 수 없는 장면이었다. 사모펀드는 고수익 고위험 투자다. 투자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자본시장의 룰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의 심판답지 않은 결정을 내렸다.

‘SG사태’와 ‘라임사태’의 공통점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보이지 않는 금융당국이다. 사모펀드나 CFD 규제완화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었고, 일반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졌다. 금융당국이 시장의 ‘파수꾼’으로 명예회복을 하려면 금융사고의 사전 인지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리고 규제완화에 신중해야 한다. /금융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전세사기와 대책 그리고 여야합의



기지 수첩
김 대 환
(건설부동산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사기’가 화두다. 전세사기의 피해 규모가 큰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인 20~30대 청년들이 잇달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발표를 통해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정부가 정해놓은 특별법 적용 대상의 몇몇 요건들은 기준이 모호해 주관적인 부분이

개입될 상황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되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낙찰받을 때 은행이 장기 저리로 금융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안은 빚을 진 피해자에게 또 다른 대출을 받게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하겠다는 방안의 경우 실제 LH가 사들일 수 있는 임차주택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가 땀집식 대책만 내놓는 사이 부동산 시장 침체와 주택 가격 하락으로 임대인이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가는 ‘강동전세’가 늘어나고 있어 전세사기 피해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신청된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는 8452건으로, 지난 1월(6622건) 대비 27.6%(1830건) 증가했다. 지난해 4월(5299건)과 비교해 보면 59.5%(3153건)나 늘었다. 지난 3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약 3199억원으로 지난 2월(2542억원) 대비 25.8%(657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1121건에서 1385건으로 23.6%(264건) 증가했다.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처리를 두고 공방 중이다. 지난 1일과 3일에 이어 전날에도 특별법 심사를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오는 16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정부는 빠른 시간 내에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여야는 특별법 제정안 통과로 피해자 대책 마련에 한목소리를 내길 희망한다. /kdh@

오늘의 운세5월 12일 (음 3월 23일)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 가도 흥한다. 48년생 돈의 유무에 따라 서비스가 차이난다. 60년생 부동산계약은 오래된 부동산에서, 72년생 열 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마음속은 헤아리기 어렵다. 84년생 실의에 빠지지 말자.

 소

37년생 경관은 넓고 화려하나 머물 곳이 없다. 49년생 사회적으로 정의와 책임의식이 일어난다. 61년생 입안의 허처럼 구는 사람에게도 배울 것이, 73년생 날개 없이 하늘을 나는 기분이다. 85년생 심신을 닦고 집안도 닦자.

 호랑이

38년생 백(魄)이 편안해야 후손도 편안해진다. 50년생 배우자가 나에게 좋은 협력자. 62년생 오늘의 영광은 어제의 고난에서 오는 보답이다. 74년생 흰색이 행운을. 86년생 물과 고기의 관계처럼 뗄 수 없이 친한 친구가 감사.

 토끼

39년생 기도로 우환을 줄여보라. 51년생 사람의 귀천이 돈이나 권력에 의해 구분되는 느낌. 63년생 보험으로 노후대비를 조금씩. 75년생 내키지 않는 술자리는 불평 말고 차라리 가지 않으면 될 것. 87년생 인연법으로 인해 손해수.

 용

40년생 독신이 부자라면 그 재물을 지키기가 수월치 않다. 52년생 조금이라도 미흡하면 일을 중지. 64년생 직장에서 공과 사를 구별하라. 76년생 부지런하여 앞서가는 사람을 본받도록. 88년생 지난 일에 집착 말고 잊는 것이.

 뱀

41년생 불행한 가정은 말이 많아 저마다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53년생 위기를 기회로 삼아라. 65년생 약속이 겹쳐서 않도록 메모하라. 77년생 하나를 주고 두 개를 얻는다. 89년생 너무 맑은 물에는 큰 고기가 살지 않는다는데.

 말

42년생 잠자기 전에 물을 떠 놓고 명상을 잠시 해보라. 54년생 말을 많이 하려면 지갑도 열려라. 66년생 요행수를 바라다가 큰 손실. 78년생 뺨치사를 도우니 성과가 온다. 90년생 공과 보리는 분명 모양이 다르니 우기치 않는 것이.

 고양이

43년생 어려운 일이 닥쳐도 독심으로 밀고 나가자. 55년생 함께하는 상대방을 의심하지 마라. 67년생 결과가 보이니 적극적으로 일하라. 79년생 중간에 주변이 시끄러워 절로 입을 다문다. 91년생 조상을 숭배하고 족보에 관심을 갖자.

 원숭이

44년생 문서로 인한 이익이 있으니 기회를 잘 잡자. 56년생 병은 자랑해야 빨리 낫다고 했다. 68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즐거운 날. 80년생 아침에 주변을 청결하게. 92년생 위태롭고 험난함을 무릅쓰다보면 결과가 이르게 된다.

 닭

45년생 대기업을 그만두겠다는 자식이 기가 막혀서 우울. 57년생 시비를 가리니 내 허물이 더 크다. 69년생 눈치를 보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을 하라. 81년생 기대가 커서 실망도 크다. 93년생 재물의 증식은 음의 영역에서 시작이 되는데.

 돼지

46년생 고독하게 치우쳐 있는 삶에는 재정이 도모되지 않는다. 58년생 부모님 생신날 효를 하자. 70년생 골치 아픈 일을 조언을 구하여 처리. 82년생 고부간 간교한 싸움에 휘둘리지 않도록. 94년생 새 술은 새 부대에 품으라 했다.

 돼지

47년생 액운을 막아주는 풍속을 따르는 것도 지혜. 59년생 조력자가 있어서 행복. 71년생 고급관리가 되기 전초전. 83년생 금전 문제는 사람 잃고 돈을 잃으니 받을 생각 말고 줘라. 95년생 사기 수는 누구에게나 접근되니 항상 진중하게.

김상회의四季

풍수, 명당과 물

뒤쪽에 산이 있고 앞쪽에 물이 흐르는 입지라면 단번에 배산임수가 떠오른다. 마을이나 집이 들어서기에 이상적인 터가 배산임수인데 풍수로 보면 명당에 해당한다. 배산임수가 좋은 이유는 뒤에 있는 산이 생기를 불어넣고 앞쪽의 물은 산의 좋은 기운을 흠어지지 않게 모아 주기 때문이다. 풍수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배산임수라고 하면 고개를 끄덕인다. 배산임수가 좋은 터라는 인식은 확고하다. 그렇다면 앞쪽으로 물을 끼고 있으면 좋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정말 그럴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무조건 좋다고 하기는 힘들다. 형태나 위치 등에 따라 물도 좋고 나쁨이 나뉜다. 개인 주택이라면 앞쪽으로 흐르는 물의 형태를 보자. 주택 앞에 작은 냇물 정도의 물이 흐른다면 좋은 풍수이다. 부드럽게 흐르는 냇물은 사람을 편안하게 해준다. 큰 강물이 흐른다면 조금 달라진다. 물살이 강한 강물이라면 사람의 심리를 불안하게 만들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물살이 강한데 강의 폭도 넓다면 재물의 손실을 불러온다고 보기도 한다. 너른 바다를 볼 수 있는 풍광 좋은 해변 주택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다. 풍광이 주는 장점도 있지만 바닷가와 너무 가깝다면 더 생각해야 한다.

너무 심한 습기는 건강에 나쁘게 작용하고 강한 염도는 건축물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 물은 재산의 흐름을 상징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물은 편안하게 흘러야 하고 막히는 곳이 없어야 좋다. 배산임수 터는 뒤쪽의 산이 바람을 막아줘 겨울철에 따뜻하고 앞쪽에 있는 물에서 농업과 생활용수를 쉽게 얻을 수 있다. 물을 얻기 좋은 곳이 사람 살기에 좋은 터라는 의미다. 현실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되는 물은 너무 급하지 않고 천천히 흘러야 좋다. 깊은 물보다는 친근함 부드러움이 중요하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18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1291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생각날수록
문제출제: 손호성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파를
사우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토쿠65 | 10,000원

문제풀이방법
4X3 스토쿠는 가로세로 4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토쿠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3		6		2
			9	2	1
		5	2		4
	2	9			4
		3	6		8
			4	7	9
	9			8	
					7

1			8		5			7
			1	7	2			
				4				
4	5						9	3
	6	9					4	8
8	1						7	5
				8				
			3	6	1			
6			5		7			9

정답

ㄱ	6	8	ㄷ	ㄹ	5	ㄴ	9	1
ㄷ	ㄴ	9	9	8	1	ㄱ	6	ㄹ
9	ㄹ	1	6	ㄴ	ㄱ	8	9	ㄷ
6	9	ㄷ	8	1	9	ㄹ	ㄱ	ㄴ
1	9	ㄱ	ㄹ	5	ㄴ	6	ㄷ	8
ㄹ	8	ㄱ	ㄴ	6	ㄷ	9	1	9
8	ㄱ	ㄹ	1	ㄷ	6	9	ㄴ	5
9	ㄷ	6	ㄴ	9	8	1	ㄹ	ㄱ
ㄴ	1	9	9	ㄱ	ㄹ	ㄹ	8	6

6	ㄹ	1	ㄴ	ㄷ	9	ㄱ	8	9
ㄱ	ㄷ	8	1	9	ㄹ	5	6	ㄴ
9	9	ㄴ	6	8	ㄱ	1	ㄷ	ㄹ
ㄹ	ㄴ	9	ㄱ	6	ㄷ	ㄹ	1	8
1	8	ㄱ	ㄹ	5	ㄴ	6	9	ㄷ
ㄹ	6	ㄷ	8	1	9	ㄴ	9	ㄱ
ㄷ	1	ㄹ	9	ㄱ	ㄴ	6	8	ㄴ
8	ㄱ	9	ㄷ	ㄴ	1	9	ㄹ	6
ㄴ	9	6	9	ㄹ	8	ㄷ	ㄱ	1

과·하이드의 월드파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포켓몬 공식 라이선스 신제품 출시!



포켓몬 맥세이프 보조배터리

강력한 맥세이프 자성! 슬림하고! 가볍다!
최대 20W 유·무선 고속 충전!



포켓몬 무선 충전 마우스패드

귀여운 피카츄 얼굴을 그대로 담은 마우스패드로
나만의 PC공간을 밝고 귀엽게 꾸며보세요!



상품문의 | 게임피아(주) 공식 온라인몰 : www.sofrano.com & TEL : 031-447-8858

※해당 제품은 한국 내 포켓몬 공식 라이선스 상품입니다.※

본 제품은 한국 내 독점적 저작권 관리자인 (주)포켓몬코리아와의 정식 계약에 의해 생산되므로 무단 복제 시 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국 내에서만 판매 가능.

©Nintendo, Creatures, GAME FREAK, TV Tokyo, ShoPro, JR Kikaku. ©Pokémon.
포켓몬스터, 포켓몬, Pokémon은 Nintendo의 상표입니다.

GamePia

찰스 3세의 와인 ‘로얄 컬렉션 코로네이션’



안 상 미 기자의

Why, wine 095



로얄 컬렉션 코로네이션 2023.

/하이그로브 가든

영국 찰스 3세 국왕 부부는 대관식을 마치고 버킹엄 궁전으로 돌아오면서 4톤 짜리 ‘골든 스테이트 코치’, 쉽게 말해 황금마차를 탔다. 찰스 3세의 어머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대관식도 치뤄냈던 이 황금마차는 무려 260년이나 된 골동품이다.

찰스 3세가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 선택한 것은 황금마차 뿐만이 아니었다. 와인이다. 70년 전 엘리자베스 2세 대관식에서 쓰였던 것과 같은 크로아티아 트라미나츠 와인(Traminac Hrvatsko Podunavlje Premium)이 다시 와인 리스트에 올라왔다.

트라미나츠는 화이트 와인 품종인 게비르츠트라미너를 말한다. 크로아티아에선 1700년대부터 생산돼 3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물론 생산된 빈티지는 달랐다. 엘리자베스 2세 때는 1947년, 이번 찰스 3세는 2019년 빈티지다. 크로아티아 동쪽 끝에 위치한 유서깊은 와이너리 일로크 셀러의

와인들이다. 당시 20대의 젊은 엘리자베스는 일로크의 와인을 마음에 들어했고, 와이너리는 그녀의 대관식을 위해 1947년 빈티지로는 거의 전량에 가까웠던 트라미나츠 와인 900상자 가량을 영국 왕실로 보냈다. 빈티지 1947년은 엘리자베스가 필립공과 결혼한 해다. 일로크는 찰스 3세 부부가

지난 2016년 크로아티아를 방문했을 때 몇 병 안남은 1947년 빈티지 중 하나를 선물하기도 했다.

사실 일로크는 왕실에선 꾸준히 선호해 온 와인이기도 하다. 2011년 윌리엄 왕세자 부부의 결혼식에서는 일로크의 트라미나츠 아이스 와인을, 2018년 해리 왕자 결혼식에는 일로크의 스위트 와인이 쓰였다.

크로아티아산 트라미나츠 와인을 접하기 힘들다면 수많은 대중을 위한 와인도 물론 준비됐다. 브리티시 피즈(British Fizz), 즉 영국산 스파클링 와인이다.

영국 와인이라면 고개를 가우뚱 거리겠지만 영국 스파클링 와인이라면 마음을 좀 놓아도 된다. 전 세계에서 샴페인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인 영국은 일찍부터 그 가치를 알아쳤고, 영국은 이제 소비국이 아닌 스파클링 와인 생산국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 프랑스 샹파뉴 지역과 같은 백악질 토양과 차갑고 서늘한 기후도 영국 스파클링 와인이 빠르게 성장하는데 한 몫을 했다.

대관식 공식 빈티지 스파클링 와인은 하이그로브 가든(Highgrove Gardens)이 내놓은 ‘로얄 컬렉션 코로네이션(The Royal Collection Coronation) 2023’이다. 가격은 45파운드(한화 약 7만5000원)다.

영국 스파클링의 고전적인 공식을 그대로 따라서 샤르도네와 피노누아, 피노피니에의 블렌딩이다. 샤르도네가 구조적으로 탄탄히 잡아줬다면 피노누아는 무게감과 깊이를 더해줬고, 마지막으로 피노피니에는 와인에 우아한 꽃과 과실의 향을 입혔다. 어울리는 음식은 생선과 함께 가벼운 고기 요리, 치즈 등으로 제안했다.

그런데 잠깐, 지금이 2023년 5월인데 와인이 2023년 빈티지다. 70년 만에 열리는 대관식을 기념하려고 만드는 건데 2022년 빈티지를 새겨넣을 순 없었을까. 그렇다고 2023년 빈티지를 하려면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지만 대관식 담당자들은 어떤 답변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smahn1@metroseoul.co.kr



영국 런던 중심가에서 한 왕실 지지자가 대관식을 기다리며 와인을 마시고 있다. /AP·뉴스시스



주말은 책과 함께

막을 수 없는 인간의 본성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지하로부터의 수기’에는 의식의 지하 세계에 사는 냉소적이고 고립된 한 인간, ‘지하인’이 두서없이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설 속 주인공은 ‘인간이 문명 때문에 온순해졌고 피에 덜 굶주리게 됐으며 전쟁을 덜 하게 됐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한다.

인간은 자신의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진리를 왜곡하고 보이는 것을 보려 하지 않고 들리는 것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우리 주위에 삼페인처럼 기분 좋게 흘러넘치는 피의 강물이 그 증거라는 것.

그는 오늘날의 위대한 영웅 나폴레옹, 영원한 연방인 북아메리카, 우스운 캐리커처인 술레스비히 홀스타인을 예로 들며 문명이 대체 무엇을 평화롭게 해주었냐고 묻는다. 문명은 인간의 내면에 감각의 다양성만을 발달시켰고, 더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주인공은 한탄한다.

지하인이 본 인간은 다양성의 발전 뒤에서 천성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다. 가장 고상하게 피를 흘리게 만드는 이들이 가장 문명화된 자들이라고 주인공은 비판한다. 과거에 인간은 피 흘리는 것 속에서 정의를 발견했고 자신이 처벌해야만 하는 이들을 양심에 거러김 없이 처벌했다. 오늘날의 인간은 이와 다를까. 주인공은 지금의 우리는 피 흘리는 것을 혐오



지하로부터의 수기

표도로 도스토예프스키 지음/조혜경 옮김/평권클래식코리아

스럽게 생각하면서도 그러한 일을 여전히 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전보다 더 많이 하고 있다고 꼬집는다.

고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는 황금 바늘로 자기 몸종들의 가슴을 찌르고 그들의 비명과 몸부림 속에서 쾌락을 찾는 걸 즐겼다고 한다. 주인공은 기원전 야만적인 시대에서나 벌어졌을 법한 일들이 문명화된 현대 사회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사람들은 지금도 핀으로 누군가의 가슴을 찌르고 있다는 것이다. 주인공은 “현대의 인간은 야만적인 시대보다 더 명확하게 보는 것을 배우게 됐지만, 이성과 학문이 인간에게 제시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터득하려면 아직 멀었다”고 이야기한다.

212쪽. 9000원.

/김현정 기자 hjk10

답페이크의 얼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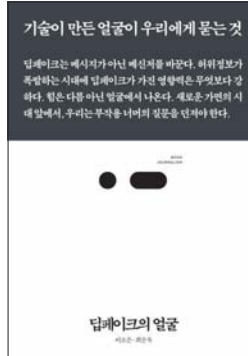
이소은, 최순옥 지음/스리체어스(threechairs)

AI 시대의 이미지는 얼굴의 모양과 위상, 색과 출신을 묻는다. 이 질문에서 얼굴에 담긴 진실과 거짓에 대한 논의는 무의미하다. 눈과 머리가 싸우는데 진실과 거짓의 충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모든 기술이 그렇듯 답페이크 역시 양면성을 띠고 있다. 답페이크를 통해 노배

우의 젊은 시절 연기를 볼 수 있고, 버추얼 인플루언서들의 새로운 시도를 경험할 수 있다. 허나 답페이크는 가짜 뉴스 확산,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 등의 어두운 면을 갖고 있기도 하다. 책은 답페이크 기술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한다.

152쪽. 1만2000원.



친밀한 감시자

탕페이링 지음/서지우 옮김/유유

보호관찰제도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소년원이나 교도소에 가두지 않고, 그들이 사회생활을 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책의 저자는 타이완의 보호관찰관 탕페이링이다. 책은 독자들에게 ‘가해자가 저지른 죄와 동일한 대가를 돌려주는 것

이 형벌의 목적인지’, ‘강력한 처벌을 하면 재범률이 줄어드는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 법은 어디까지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하는지’ 등을 묻는다. 저자는 시민을 지키고 범죄를 바로 잡는 건 결국 법이 아닌 ‘사람’이란 사실을 일깨운다.

290쪽. 1만7000원.



랜선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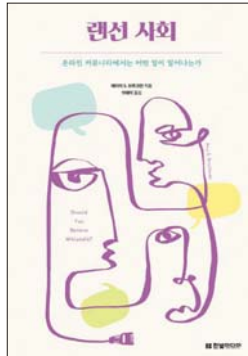
에이미 S. 브루크먼 지음/석혜미 옮김/한빛미디어

위키피디아에 나온 내용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일까. 누구나 편집할 수 있는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는 온라인 협업의 좋은 예이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구성원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는 온정 넘치는 공간이 있는 반면, 차

별적이고 혐오적인 관점을 공유하는 싸움터 또한 존재한다. 이 둘 사이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고, 사이트의 규범은 어떻게 형성되는 걸까. 책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벌어지는 편향과 폭력의 실태를 파헤친다.

256쪽. 1만8000원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엘시티 부실수사” 前기자, 배상 판결…한동훈 “선례 남겨야”
▲ 전공의들 “간호사엔 ‘간호인권법’ 필요…간호법은 안돼”



▲ ‘SG발 추가폭락’ 라덕연 측근들, 12일 구속심사 /사진 뉴스시스
▲ 검찰 ‘박영수 대장동 로비 의혹’ 前우리는행 부행장 소환



▲ 건설노조 “16~17일 총파업 상경투쟁…명예 회복” /사진 뉴스시스
▲ ‘엔데믹’에도 PCR 검사 당분간 무료…치료비 지원 그대로

감각적인 휴게실, 산수화 같은 공원… 모든 게 걸작이네



아파트의 미학(美學)

인천 ‘주안파크자이 더 플래티넘’

최근 찾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주안파크자이 더 플래티넘’. 지난 2월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는 지하철 1호선 주안역 2번 출구에서 버스를 타고 약 15분 정도 걸렸다.

단지 바로 옆에는 연학·인주초와 학익여고 등이 위치해 있어 걸어서 갈 수 있었다. 주변에는 미추홀공원이 자리 잡고 있어 입주민들이 질 높은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주안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지어진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3개동, 총 2054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조성됐다. 전용면적 ▲36㎡ ▲44㎡ ▲59㎡ ▲73㎡ ▲84㎡ 등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타입으로만 공급됐다.

아파트 정문에는 ‘자이(xi)’ 로고가 부각돼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신축 아파트에 걸맞게 멋스러운 외관을 뽑내고 있는 단지는 타입별로 4베이(BAY), 판상형, 3면 개방 구조, 타워형 구조 등을 적용해 면적을 극대화했다.

시공사인 GS건설·쌍용건설 컨소시엄은 입주민을 위해 단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거실과 주방 천장에 설치된 신개념 환기형 공기청정시스템인 시스템 클라인(Sys Clein)을 적용해 24시간 별도의 환기 없이 청정

최고 29층 13개동 2054가구, 대단지 아파트
연학·인주초, 학익여고 단지 바로 옆 ‘도보권’
스마트패스 카드·휴대폰으로 공동현관 출입

주차장 없앤 지상엔 정원 4곳, 휴게공간 배치
단지내 어린이집과 상상자극 테마놀이터 제공

한 공기를 공급한다.

시공사 관계자는 “스마트패스 시스템을 적용해 스마트패스 카드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공동현관 자동문 열림과 엘리베이터 자동 호출이 가능해져 거주하는 층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면서 “방범용 도어 카메라 및 블랙박스 기능의 월패드를 적용해 현관 근처에서 움직임이 감지되면 일정 시간 동안 영상을 촬영·저장하는 등 입주민의 생활과 안전을 지켜준다”고 설명했다.

단지 곳곳에는 ‘주안파크자이 더 플래티넘’만의 조경이 눈에 띄었다. 주차장을 없앤 지상층에는 ‘블룸힐락 가든’, ‘크리스탈 엘리시안’, ‘루비 엘리시안’, ‘백학나래 숲’ 등 총 4가지의 정원이 조성됐다. 정원 주변에는 테이블과 벤치가 놓여 있어 입주민에게 휴게공간까지 제공하고 있다.

단지 중앙 조성된 ‘블룸힐락 가든’에는 ‘석가산’이 설치돼 바람, 폭포의 물줄기와 소나무가 조화를 이루는 한 폭의 산수화와 같은 경관을 연출하고 있었다. 크리스탈 파빌리언을 중심으로 울창한 팡나무 숲이 조성된 ‘크리스탈 엘리시안’에는 조형물과 연못, 티하우스 등이 설치돼 입주민들에게 휴식과 산책공간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부드러운 그라스 초원과 우아한 학의 나래를 닮은 수경관을 즐길 수 있는 ‘백학나래 숲’의 경우 고급스러운 경관을 연출하고 있었다.

단지에는 입주민의 편의와 문화, 건강을 위해 피트니스클럽, GX룸, 스크린골프장, 사우나, 도서관, 독서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됐다.

단지 내에 어린이집이 자리 잡고 있어 아이를 키우는 신혼부부에게 좋은 여건을 제공해 주고 있다. 어린이집 옆에는 고래를 모티브로 한 놀이터 ‘고래와 함께 바닷속 탐험’이 설치됐다. 힙한 날갯짓을 마치고 포근한 동지로 내려 앉은 백학의 모습을 모티브로 한 ‘백학의 동지’와 물놀이 테마 놀이터인 ‘바다 위의 선착장’ 등도 만들었다.

/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 ① 단지 내 조성된 휴식공간 모습.
- ② ‘크리스탈 엘리시안’에 조성된 티하우스 모습.
- ③ 단지 내 조성된 ‘블룸힐락 가든’.
- ④ 단지 내 조성된 ‘루비 엘리시안’ 모습.
- ⑤ 고래를 모티브로 한 테마 놀이터 ‘고래와 함께 바닷속 탐험’ 모습.
- ⑥ 단지 내 조성된 ‘백학나래 숲’.



롯데쇼핑
영업익 64% 상승
불황 속 '선방'
L1



Life

금호리조트
아시아나CC 리뉴얼
'3S 혁신' 방침
L2



부드러운 달콤함에 사르르 전 세대 통합한 '국민간식'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해태제과 '연양갱'

1945년 출시돼 78주년 맞은 제과업계 역사
팔앙금, 우무 등 함께 씹 굳힌 화과자 종류

달콤하면서 포만감까지 있어 남녀노소 인기
소비자 취향 반영한 다양한 맛 연양갱 선보
검은깨 '흑 연양갱', 아이스크림 '연양갱바'도



1957년 연양갱 광고

‘소리없이 강하다.’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와 하루가 멀다하고 출시되는 신 제품들 사이에서 꾸준히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온 제품이 있다. 장수과자 중에서도 오랜 세월을 자랑하는 해태제과의 ‘연양갱’이 그 주인공이다.

연양갱은 1945년 첫 출시돼 78주년을 맞은 오늘날까지도 사랑받고 있다. 중장년층에게는 추억을 불러일으키고, MZ 세대에게는 부드러운 맛과 식감, 건강한 간식으로 통하며 선택받고 있다.

누적매출은 7800억(AC닐슨 기준)에 달하며, 누적 판매량은 35억개다. 국민 1인당 68개씩 먹은 셈이다. 길이로 따지면 52만km로, 지구를 13바퀴를 돌 수 있다.

‘양갱’은 화과자의 일종으로 팔앙금, 우무, 설탕 등을 함께 씹 굳힌 과자를 뜻한다. 그중에서도 연양갱은 수분이 적고 당분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국내에는 1945년 8·15 광복 이후 일본인 공장주가 버리고 간 양갱 공장을 박병규 해태제과 창업자가 인수해서 연양갱 브랜드를 내놓은 것이 최초다.

간식거리라고는 오로지 감자와 옥수수가 전부였던 국민들에게 건강하면서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야겠다는 취지에서 개발됐다.

연양갱은 팔앙금과 한천을 넣고 졸이는 전통 방식으로 제조됐다. 가격은 당시 버스요금보다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80년대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먹거리가 풍부해졌지만, 판촉이나 광고 없이도 월평균 120만개를 팔아 2억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해태제과는 6·25 한국전쟁 중에는 피난처인 부산으로 공장을 옮겨 연양갱을 만들 정도로 한 번의 중단도 없이 제품을 생산해왔다.

연양갱은 달콤하면서도 부드러운 맛과 포만감까지

있어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끌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좋아하는 ‘국민 간식’ 반열에 오른 것. 특히 이가 약한 사람이 먹기에도 부담이 없어 연령대가 높은 사람들도 연양갱을 찾았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제과 제품이 늘면서 고량층이 즐기는 간식으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등산, 자전거, 마라톤 등 생활 스포츠를 즐기는 이들에게 쉽게 당을 섭취할 수 있는 간편한 간식으로 각광받게 됐다.

자체 수분 함량이 높아 물을 적게 마셔도 쉽게 목으로 넘어가고 입이나 이에 신경쓰일 수준으로 달라붙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또 원재료 특성상 식이섬유와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으며 단기간에 탄수화물과 당을 집중 섭취할 수 있어 초코바나 칼로리바보다도 고강도의 운동에 훨씬 더 적합하다. 초코바처럼 더운 날씨나 체온에 녹아내리는 애로사항이 없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해태제과는 연양갱의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소비자들의 취향을 반영한 다양한 맛의 연양갱을 선보여왔다.

2004년 9월 호두양갱으로 첫번째 맛 변신을 한 이후 홍삼(2005), 오곡(2007), 상황버섯(2008), 꿀(2012), 검은깨(2014), 단호박(2017) 등 영양 간식 연양갱과 어울리는 건강 재료를 더해 새로운 맛 출시해왔다.

특히 2015년 검은깨로 만든 ‘흑 연양갱’을 출시해 학생들의 사랑을 받았다. 오리지널 연양갱 보다 단맛을 줄이고 검은깨를 통째로 넣어 고소한 맛과 향을 냈다. 부드러움과 함께 입 안에서 검은깨가 툭툭 터지는 씹는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태제과는 연양갱을 차갑게 얼린 아이스크림 ‘연양갱바’도 선보였다. 연양갱을 차갑게 얼려먹는 듯한 달콤한 팔 맛과 쫄득한 식감까지 그대로 살렸다.

통팔을 넣는 아이스크림들과 달리 껍질을 벗긴 연양갱 특유의 팔앙금을 사용해 부드럽고 깔끔한 식감을 자랑하며 젤라틴을 넣어 쫄득함까지 더했다.

해태제과 측은 “지난 70년 넘는 기간동안 꾸준히 사랑 받아 온 연양갱은 우리나라 제과 역사의 산증인”이라며 “긴 시간 동안 사랑 받은 비결은 트렌드에 맞춰 변화를 거듭한 덕분이다. 중장년층은 물론, 건강한 식문화에 관심이 많아진 MZ세대의 입맛까지 고려해 오래오래 사랑받는 상품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연양갱과 흑 연양갱. /해태제과

버스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바르셀로나 황금기 이끈 부스케츠, 18년 만에 떠난다 /사진 뉴시스
▲챔스 4강 1차전 승리 인터밀란 감독 “2차전도 집중해야”

▲나폴리 김민재 “우승 티셔츠 ‘3’, 내 등번호인 줄”
▲‘김하성 결장’ 샌디에이고, 미네소타에 연장 끝 패배



▲오타니 쇼헤이, 8경기만에 시즌 8호 포 폭발 /사진 뉴시스
▲NBA 시즌 베스트5에 아데토쿤보·테이텀·엠비드·SGA·돈치치